'딴따라' 댄스 가수 박진영

metro

메트로 2015년 4월 21일 화요일

추신수 10일만에 타점 추가

명절엔 선물을 돌려야지

신세계 이마트, 관내 경찰 등 조직적 관리 정황 p/03

추석선물 리스트 내부문건 입수… "확인 땐 뇌물죄"

"세월호 선체 인양 22일 결정 즉시 시행" p/03

이완구 총리 22일 침몰? p/3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세요

죽음의 바다에서 살아난 아기 리비아를 출발해 이탈리아로 가다 19일(현지시간) 지중해에서 전복된 난민선에는 당초 알려진 700여명이 아닌 훨씬 많은 950명가량이 타고 있었다는 생존자 증언이 나왔다. 구조작업을 통해 아동 28명을 포함해 약 100명의 난민만이 구조됐다. 사진은 한 구조요원이 구출한 어린이를 안고 있는 모습(위)과 이탈리아 시칠리아로 가는 해군 함정 난간에 구조된 난민들이 모여 있는 모습(아래). 아프리카 난민들은 유럽으로 탈출하기 위해 리비아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항로를 이용하고 있지만 잦은 사고로 이 항로는 죽음의 길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춘 출국 논란

19일 부부동반 도쿄행… 논란 일자 측근 "20일 오후 귀국"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뒤 거짓말 해명으로 논란이 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본으로 출국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의 소환을 피하기 위한 도피성 외유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 전 실장 측에서는 이를 부인했다.

20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지금 현재 8명 중 1명이 어제 출국, 현재 갖고 있는 휴대전화가 해외로밍돼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교안 법무장관을 상대로 "이 의혹에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이 출국했다면 더 큰 국민적 의혹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전화기가 해외로밍 돼 있다면 어느 (출국 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어떤 경로로 출국한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장관은 "출국금지 관련은 개인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자료를 말씀드릴 수 없다. 다만 필요한 조치를 필요한 때에 적확하게 하겠다"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하지만 리스트에 오른 김기춘, 허태열, 유정복, 홍문종, 홍준표, 서병수, 이병기, 이완구 등 8명 중 누가 언제 어디로 출국했는지 관련 증언이 이미 공개된 상태다. 전날 다큐멘터리 저널리스트인 안해룡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한 비행기를 타고 도쿄로 간다. 부부 동행인 듯. 근데 이 양반은 왜 도쿄에 가지"라는 글을 올렸다. 안씨는 전날 오후 12시 35분 김포발 도쿄행 ANA 0864편을 탔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시스

김 전 실장 측은 출국 논란이 일자 언론에 "김 전 실장은 오래전에 잡혀 있던 개인적인 일정으로 어제 출국해 일본에 갔다"며 "용무를 보고 오늘 오후 귀국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피성 출국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0일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되자 "비서실장이 된 이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반박증거가 나오자 "지금 기억을 되살려 보니 2013년 11월 6일 오후 6시 30분에 성 전 회장을 비롯해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등 충청도 의원 5명과 저녁을 먹었다"고 말을 번복했다.

/김서이기자 @metroseoul.co.kr

오키나와서 6.8 강진 발생

쓰나미 주의보 발령

일본 오키나와 남쪽에서 20일 최대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해 일본 당국이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다.

오키나와신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3분께 오키나와현 남쪽 요나구니섬에서 진도 4도의 지진이 있었다. 진원은 요나구니섬 인근의 이시가키섬에서 서남쪽으로 180㎞ 떨어진 근해였다. 진도는 최대 6.8로 추정됐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 47분에 인근 미야코섬 등에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보가 해지될 때까지 해안가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 지진으로 높이 1m 정도의 해일이 발생했고, 일부는 인근 섬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상황이 접수된 것은 없었다.

이날 지진은 대만에서도 관측됐으나 일본과는 지진 규모에서 차이가 났다. 이란현 등 대만 동부 지역에서 규모 4, 타이베이를 비롯한 중북부 지역에서는 규모 3으로 관측됐다. 지진 측량기구와 산출방식이 일본과는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만 당국은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하지 않았다. 관측된 지진 규모가 쓰나미 주의보 발령 기준치인 규모 6.5를 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병형기자

20년전 테러희생자 아들과 악수하는 클린턴 전 대통령 1995년 미국 오클라호마 주도인 오클라호마시티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참사의 희생자를 애도하는 20주기 추모식이 19일(현지시간) 테러로 지금은 사라진 연방 청사 건물 앞에서 열렸다. 당시 대통령이던 빌 클린턴이 행사에 참석해 희생자의 아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니셜 C' 보도에 추미애, 조선일보 고소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20일 조선일보를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조선일보가 17일자 기사에서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연합뉴스

추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일보는 4월 17일자 1면 톱기사를 통해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인에게 언제 어디서 얼마를 줬는지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며 여당 정치인 7~8명을 언급(했다)"며 "그 중 새정치연합의 유력한 중진 정치인인 C의원도 포함되었다고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날 조선일보는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가 17년 전 국회의원실에 1년 동안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아무 근거 없이 마치 모종의 긴밀한 관계를 짐작 가능케 하는 '짜깁기' 기사를 썼기 때문에 다음날인 17일 보도된 위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누구든지 새정치연합 중진 C의원이 추미애라고 추론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에 "실제로 17일 당일 수많은 언론의 확인요청 전화를 받았고 사무실 업무가 마비되었다"며 "물론 조선일보는 저나 의원실에 사전에 그 어떠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 보좌관이 조선일보에 유력한 중진 C의원에 대한 확인요청을 하자 '추미애 의원이라고 나가지 않았거든요' 라며 'C'가 추미애라고 추론될 것임을 알고 있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저는 성완종 전 회장과 어떠한 인연도 없었다"며 "특히 저는 박 전 상무가 경남기업에 입사했다고 하는 2003년 이후 17대 총선에서 낙선함으로써 당시 현직 의원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경기도 성남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성 전 회장이 다녀갔다는 한 종합편성채널의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 제 홈페이지에 지난 3년간 출판기념회 2시간짜리 동영상이 3년간 게시돼 있다"며 "저는 아궁이 근처도 안 갔는데 연기났다고 짜깁기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의 문무일 팀장은 조선일보 보도가 나간 당일 보도내용을 부인하며 "오늘 같은 일은 제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유감을 나타낸 바 있다. /이상경기자

이총리 해임건의안 이르면 내일 제출

새누리당 소장파 14명 "찬성표 던질 것"···'사상 초유' 통과 가능성 높아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이르면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이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공식화했다. 이 총리가 고인이 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서도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면서 버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연합이 이 총리에게 제시한 자진사퇴 시한은 19일이었다.

새정치연합은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건의안 제출과 관련한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의총에서는 22일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23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안이 결정될 공산이 커 보인다. 4.29 재보궐선거 일정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21일 여야 원내대표에서 해임건의안에 대한 조율이 있을 전망이다. 협의결과에 따라 24일 본회의가 하루 더 열릴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20일 해임건의안 제출과 관련해 "저와 우리 당은 지난 주말까지 총리 본인과 새누리당에서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 달라고 거듭 요청해왔는데 새누리당은 차일피일 미루며 눈치만 보고 있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으로서 창피한 일이고 국민들이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소리'를 대표해 "아침소리 회원들은 이 총리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야당에서 추진하는 해임건의안 표결에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귀국 때까지 해임건의안 제출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침소리 회원은 14명이다. 투표에 들어갈 경우 해임건의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헌법에 제정된 이래 총리 해임건의안은 5번 본회의에 상정됐고, 이 중 3번 실제 표결에 부쳐졌다. 하지만 가결된 적은 없다. 이 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될 경우 사상 초유의 일이 된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축사를 하고 있는 이완구 총리(위). 이 총리 해임건의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새누리당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 대변인인 하태경 의원(아래).

MB의 유유자적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으로 궁지에 몰렸던 이명박 전 대통령(가운데)이 20일 대구상공회의소 만찬 간담회차 대구를 방문했다. 사진은 이 전 대통령이 대구의 한 카페에서 커피라테를 주문하는 모습. 이 전 대통령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세인의 관심에서 벗어났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성완종 사태에 대한 질문에 "대답할 이유가 없다"며 "빨리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서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들이 안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완구 사태 '족집게 예언' 화제

"이완구 후보자를 총리 후보로 세우는 것이 당장은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해명되지 않는 후보자의 비리가 수시로 폭로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국정은 마비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점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식물총리'로 불리는 이완구 총리의 현 상황을 정확히 예언한 한 야당 국회의원의 이야기가 20일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화제다.

전날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앞서 했던 의사진행발언을 소개했다.

당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이었던 홍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기됐다. 수많은 병역·재산·언론관·국보위(5공 직전 국가보위비상대책위) 부정과 비리 연루 건이 제기됐지만 후보자는 국민 앞에서는 할리우드 액션을 해가며 거짓말을 끊임없이 했다"며 국정 마비사태를 예견했다.

홍 의원은 자신의 이 같은 예견에 대해 "다시 뒤돌아보니 제가 한 예언이 그대로 들어맞고 있다"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병형기자

지난 2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중인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방송 화면캡처

'북핵·미사일 대비' 예산 5년간 8조7000억원

전년보다 7000억원 증액 "북핵 소형화, 탄도미사일 위협 고도화"

군 당국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타격하는 무기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8조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0일 발표한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 체인(Kill Chain) 전력 확보를 위해 6조원을 책정했다. 2015~2019 중기계획보다 3000억원을 증액했다.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식별, 타격 능력을 갖추는 게 목적이다.

또 다목적실용위성(6호), 고고도 정찰용무인기(글로벌호크),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 중거리 공대지유도폭탄 GPS(인공위성위치정보)유도폭탄(907kg급)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 전력 확보에는 2조7000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2015~2019 중기계획보다 4000억원 늘린 것이다. KAMD 체계는 북한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 요격할 수 있는 무기로 구성된다. 패트리엇(PAC-3)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고 탄도미사일 위협도 고도화됐다고 판단했다. 킬 체인과 KAMD 체계 구축 예산을 2015~2019 중기계획보다 7000억원 증액한 이유다.

내년부터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투입될 총예산은 232조5000억원이다. 전력운영비 155조4000억원(연평균 5.2% 증가), 방위력개선비 77조1000억원(연평균 10.8% 증가) 등이다. /장윤희기자 yoona1@

선관위 직원, 투표용지 인쇄상태 점검 4월 29일 열리는 2015년 상반기 보궐선거를 앞두고 20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서울 영등포 한 인쇄소에서 투표용지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완구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쓴웃음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Lee Wan Gu Dismissal Proposal 'Countdown'

The countdown of the dismissal proposal submission of the Secretary of State, Lee Wan Gu has been initiated. Secretary Lee is on the "Sung Wan Jong" list and also up on the corrupted scandal list. Sung Wan Jong, former CEO of Kyung Nam Enterprise, who is no longer with us, stated that he has given three million won to the Secretary of State, Lee Wan Gu.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has decided to submit the dismissal proposal of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on the nineteenth to Congress. The Representative of the New Politics Alliance, Moon Jae In, stated that if the decision of resignation is not made over the weekend, the proposal of dismissal will be examined more thoroughly. Secretary Lee is currently in charge of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affairs in place of President Park Geun Hye, who is now visiting the Middle East. The Saenuri Party is requesting to wait one week until the President's return. But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has stated that they cannot hold until the twenty seventh, which is her arrival day. Actually, Secretary Lee has been degraded to a "Helpless Secretary of State." If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submits the dismissal proposal, there is a prediction that some of the Saenuri party will show agreement to regarding the proposal.

/정리=고려대학교 영어회화
Chris Kim(김유진) 강사

이완구 해임건의안 '초읽기'

한국의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부패 스캔들에 휘싸여 있다. 고인이 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죽기 전 이 총리에게 3000만원의 불법자금을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이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이르면 23일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주말을 넘기도록 (사퇴) 결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임 건의안 제출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맡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귀국 때까지 1주일가량 기다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오는 27일 박 대통령의 귀국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총리는 사실상 식물총리로 전락한 상태다. 새정치연합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경우 새누리당에서도 동조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안미술공간 '풀' 성공적 자립 기대하며

뉴스룸에서
김민준
<문화스포츠부 부장>

최근 문화계는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의 지원금 감소로 고통을 겪고 있다.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국립극장 등 대극장은 물론 서울시향 등 규모가 큰 메이저들도 어려움을 호소한다. 소규모 단체들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미술계의 경우 오래 전부터 "자본에 예속됐고, 독점 자본의 지배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마지만 최근 대안미술공간으로 자리를 지켜왔던 '아트 스페이스 풀'이 새 출발을 모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1999년 '대안공간 풀'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이곳은 재정난에 정부 지원금 축소까지 겹쳐 존폐의 기로에 섰다가 얼마 전 기금마련전을 시작했다.

이들의 목표는 절박하다. 미술계 구성원들의 작품을 판매해 대안공간의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성희 대표를 비롯해 직원 모두가 무보수로 일하고 있지만, 월세에 관리비에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 만이 아닌 올해 개관 15년을 맞아 시작의 원동력이었던 '공동'의 의미를 다시 추스림 생각이다. 풀을 중심으로 모인 기획자·작가들이 기획과 운영에 대해 제안을 하고, 서로간의 비평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획전과 작가 프로덕션, 워크샵, 세미나, 교육, 국제교류 등도 알차게 꾸리갈 계획이다.

서울 종로구 구기동의 가파른 언덕위에 마련된 풀 전시장에는 기금마련전 취지에 동참한 작가들의 작품이 빼곡하게 걸려 있다. 원로와 중견, 신진 작가까지 평소보다 낮은 가격에 작품을 출품했다고 한다. 기금마련전은 다음달 17일까지 열린다.

이어 다음달 26일부터 한달간은 워크숍 기반의 전시인 '눈에는 이, 이에는 눈'을 연다. 작가와 신청자들이 일련의 실험적인 워크숍을 거쳐 작품을 제작하고, 이 과정과 결과물을 전시하는 형태다. 3명의 작가와 함께 그룹을 이룬 참여자들은 작품을 만들고 작품에 대한 가치 평가가 돈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돈이 아닌 작품에 대한 가치 교환과 돈을 대신할 수 있는 실물교환 방식을 고민하고 찾을 계획이다. 풀은 워크숍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미술계의 새로운 대안과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풀의 작업들에 풍성한 결실을 맺길 바란다.

언론보다 팬 선택한 '어벤져스2' 내한 행사

기자 수첩
장병호
<문화스포츠부 기자>

해외 스타의 내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항상 이런 반응이 올라온다. "'두 유 노우 김치?' '두 유 노우 강남스타일?' 같은 질문만은 제발 하지 말아달라"는 글이다.

실제로 해외 스타의 내한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에 대한 질문이 빠지지 않는다. 한국에 온 소감부터 한국에 대한 인상,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이다. 이유는 하나다. 소위 말하는 기사의 '야마'로 이보다 좋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톱 배우가 한국에 와서 아무리 올바른에 대해 이야기한들 '강남스타일'의 말춤을 추는 것이 화제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외국의 스타들에게 큰 관심이 없는 독자들에게는 나름의 의미가 있을지 보른다. 그러나 팬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해외 스타들이 한국에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다. 쉽게 만날 수 없는 스타인만큼 보다 깊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두 유 노우 강남스타일'은 해외 스타를 대하는 기자와 팬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감의 표현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17일 열린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하 '어벤져스2')의 내한 행사는 팬에게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시간이었다. 레드카펫 행사는 지켜본 기자 입장에서는 팬의 들뜬 분위기가 조금은 부러웠다. 그들은 진심을 다해 스타들을 환영했고 스타들도 이들의 뜨거운 환대에 진심으로 화답했다. 토크 타임에서도 영화 속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여러 차례 내한 행사에 실망했던 팬에게 '어벤져스2'의 내한 행사는 간만에 기억에 오래 남을 행사가 됐다.

그러나 정작 언론을 대상으로 한 행사는 아쉬움을 가득 남겼다. 이날 오전에 진행된 기자회견은 영화의 화제성을 증명하듯 어느 때보다 많은 기자들이 모였다. 그러나 기자회견은 포토타임을 포함해 40여분 만에 끝났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주고받을 수 없었다. 평소 내한 행사 직전에 언론시사회를 갖는 것과 달리 '어벤져스2'는 기자회견 직전 20분 분량의 하이라이트 영상만을 공개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애초부터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최 측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스타들은 유난히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쏟아냈다. 특히 한국을 여러 차례 찾았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크리스 에반스는 영화 이야기보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 많이 했다. 그것은 어쩌면 지난 내한에서 한국 기자들이 영화보다 한국에 대한 질문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언제까지 해외 스타들에게 한국에 대한 질문만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다.

인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승진 ▷선임연구위원 류정곤 ▷연구위원 최상희 ▷부연구위원 김선희 ▷부연구위원 예창모 ▷책임행정원 김유빈 ▷선임행정원 김혁주

◇한국감정원 △임원 승진 ▷상무이사(수탁사업본부장) 변성현 △실·처·지사장 보임 ▷홍보실장 박형국 ▷경영지원실장 박행규 ▷감사실장 조주현 ▷서울강남지사장 허승문 ▷경기권선지사장 임영수 ▷인천지사장 임윤수 ▷경기의정부지사장 유온철

◇MBC △공익법인 MBC꿈나무축구재단 ▷이사장 박성희 ▷이사 권상일 ▷이사 최성금

◇한국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권창권

◇이시티투데이 △승진 ▷광고마케팅국장 겸 온라인마케팅국장 상무이사 정진선

◇아주경제 ▷편집국 뉴미디어부 부국장 겸 문화관광체육부 부장 김기완

부고

▲이재오씨(코오롱재선이디칼일 대표) 장모상 = 20일 경남 진주시 경상대병원, 발인 22일 오전 9시. (055)745-8000

▲김석곤씨(전 안동시의사회장, 안선학문외과의원 원장) 별세 = 19일 안동의료원, 발인 22일 오전 7시 30분. (054)840-0030

▲김원호씨(전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 전 엔터프로덕스 사장) 선호 등호씨(사업) 부친상 = 19일 서울대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02)2072-2018

카드업계, 먹거리 많은 '車금융' 러시

중고차 복합할부서 캐시백까지 상품 다각화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상품 시장이 사실상 문을 닫은 가운데 카드업계의 자동차 구매금융은 다각화되는 모양새다.

신한·KB·삼성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들이 줄줄이 현대자동차 그룹과의 계약 연장을 종료함에 따라 4조5000억원 규모의 복합할부금융상품 시장을 대체하기 위한 복안이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구매비용부터 보험료, 유지비까지 장기적인 고객 확보 유지에 효자 노릇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 먹거리를 놓지지 않기 위한 카드사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카드는 중고차 유통업계 U-Car와 손잡고 중고차 구매시 카드결제가 가능한 자사복합할부 상품 'C Plus'를 출시했다.

이는 카드결제와 할부금융을 접목한 상품으로 중고차 구매시 카드 부가서비스와 할부 금리 혜택을 동시에 제공한다.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할부금융 전환을 통해 마일리지, 캐시백, 포인트 등 카드 고유의 부가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또 매달 상환액 0.5% 금리인하 우대까지 받을 수 있다.

중고차도 복합할부로 구매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앞서 신한카드는 지난해 본인 차량 매각을 원하는 고객이 공개입찰 경매방식 '짤카옥션' 시스템을 통해 중고차를 매각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신한카드는 이달까지 국산 신차 오토플러스Ⅰ과 오토플러스Ⅱ 다이렉트 상품을 통해 자동차를 구매한 고객에게 마이신한포인트 1%(최대 10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중고차시장에 C-Plus 자사복합할부상품 도입을 통해 고객의 혜택을 극대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중고차시장 특성상 현금거래 위주에서 벗어나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거래 활성화와 투명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시백 등 혜택을 담은 카드사 자체 자동차 구매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우리카드는 최대 1.5% 돌려주는 '우리오토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를 구매하기 전 선정한 고객에 한해 리워드 혜택을 준다.

올 초 오토마케팅 조직을 구성한 롯데카드는 이달까지 오토캐시백을 활용해 새 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최고 1.9%를 돌려준다.

2000만원 이상을 일시불로 이용한 고객은 결제금액의 0.2% 추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또 오토캐시백가상계좌(별도SMS통보)에 지급결제대금 입금 시 0.2%가 더 주어진다.

약정서 작성이나 취급 수수료, 근저당 설정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동차 할부를 이용할 수도 있다.

내달 31일까지 오토할부 이용 신청 후 자동차를 구매한 롯데카드 고객은 2~3개월 할부의 경우 무이자, 4~24개월 할부는 5.3%, 25~36개월은 ㄱ4%) 이자율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

이는 현대, 기아, 쉐보레, 르노삼성, 쌍용, 할리데이비슨 신차와 모든 수입 신차를 대상으로 한다.

KB국민카드는 대림자동차와 손잡고 장기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실시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전국 88개 대림자동차 영업소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은 2~3개월 무이자 혜택을 받는다. 100만원 이상 결제시 6, 10, 12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현대카드는 포인트를 미리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세이브 오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세이브 오토 이용 고객은 자동차 구매 시 차종에 따라 20만·30만·50만 원을 미리 지급 받아 사용한 후 36개월 내에 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되는 M포인트로 이를 상환하면 된다.

이밖에 매월 보유 M포인트에 2%를 추가 적립해 2년 내 신차 구매시 추가 포인트 사용혜택을 주는 이른바 포인트 자유인출금통장인 'M포인트 신차 구매통장'도 있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자동차 구매는 은행과 캐피탈, 카드사마다 각기 다른 금리와 혜택이 마련돼 있어 현재 신용등급과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해서 구매할 필요가 있다"며 "카드사의 경우 캐시백이나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이 있어 현금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단기 할부 등으로 구매시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하람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삼성증권, 'POP UMA' 1조원 돌파

삼성증권(사장 윤용암)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POP UMA'(Unified Managed Account)의 가입잔고가 지난 17일 1조원을 돌파한 1조132억원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POP UMA'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엄선한 펀드, 주식, ELS 등으로 고객니즈에 맞는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가입 후에는 시장상황이 변할 때마다 리밸런싱 등 신속한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랩 서비스로 고객수익률 중심의 고객중심경영을 선언한 삼성증권의 대표상품이다.

'POP UMA'는 6개월 이상 운용된 자금의 평균 잔고수익률이 8.73%, 9개월 이상은 9.42%, 11개월 이상은 11.57%를 기록하는 등 꾸준하고 안정된 수익률을 올리는 투자철학을 실현했다. 이에 올 들어서만 7000억원의 자금이 몰리며 1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본사 전문가가 운용을 담당하는 '본사운용형'은 가입자가 가장 많은 초고위험형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운용개시 이후 5개월간의 누적 수익률 14.1%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안정된 수익률 관리의 원동력으로는 본사의 자산배분전략을 담은 11개 모델포트폴리오가 꼽힌다. 'POP UMA'는 이 11개 모델포트폴리오를 참고해 운용하는데, 모델포트폴리오들이 각각 추종하는 벤치마크 대비 평균 1.7%를 초과하는 좋은 성과를 시현하고 있다.

이밖에 가입할 때 한 번에 받던 판매수수료 대신 분기별 사후관리 수수료를 받는 체계를 도입해 영업직원이 판매보다 수익률 관리에 집중하도록 한 점도 고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은 "POP UMA 1조 돌파는 삼성증권이 약속드린 고객수익률 중심 경영에 대해 고객들께서 공감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노력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률 관리가 가능한 포트폴리오 컨설팅 영역을 확실히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POP UMA' 운용 유형별 잔고비중은 'PB운용형'이 83%, '본사운용형'이 17%로 나타났다. 투자유형별로는 가장 적극적인 초고위험형 비중이 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삼성증권은 이번 POP UMA 1조 돌파를 기념해 내일부터 POP UMA 가입고객 대상으로 선착순 56억지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사은이벤트를 벌인다. 20일에는 POP UMA 1조 돌파를 위해 힘쓴 임직원들을 위해 全 지점과 본사 부서에 피자를 선물하는 깜짝 이벤트를 열기도 했다.

/김보배기자 [illegible]

KB국민은행 '사랑의 빵 나눔' 봉사 실시 KB국민은행은 지난 11일 서울 성동구 마장동 대한적십자사 등 10곳의 사랑의 빵 나눔터를 찾아 'KB 사랑의 빵 나눔 데이' 봉사활동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KB국민은행 제공

신보, 시장안정 유동화증권 4023억원 발행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4023억원 규모의 시장안정 유동화증권을 오는 24일 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회사채 만기도래 기업의 유동성 해소를 돕고 성장 유망한 기업들이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신보는 3개 대기업에 특별지원자금 1200억원과 203개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지원자금 2823억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중견후보기업과 강소기업 좋은 일자리 기업 등 유망기업133개 기업 685억원 지원에 대해서는 0.2~0.5% 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키로 했다.

신보 관계자는 "올해 총 2조6000억원의 시장안정 P-CBO를 발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회사채 시장의 안전망 역할은 물론 중소기업과 직접 금융시장의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성장성과 안정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경부의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하람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 인쇄인 남규르
사장 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김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01
2002년 5월 20일 창간 [illegible]

"인터넷보험 가입절차 간소화"

저축은행, 개인 신용공여한도 상향

앞으로 인터넷에서 보험상품을 가입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줄어든다.

또 저축은행의 개인별 신용공여한도는 현행 6억원에서 상향조정되며 증권 신탁업자의 대출 운용은 일부 허용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지난 1주일간 6개 금융사를 방문,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96건의 건의사항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장점검반은 현장의 접점에서 금융당국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다.

이들은 196건 중 39건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 처리하고 26건은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검토 중이며 관행 제도개선 사항 131건을 이번에 회신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인터넷상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온라인상에서 보험 체결 시 오프라인에서 대면으로 할 때와 같은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금융사와 소비자 모두 불편하다는 민원에 대한 조치다.

단 인터넷을 통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를 정비키로 했다.

자산운용업(신탁부문) 규제도 개선된다. 현재 증권회사의 경우 신탁업 인가취득시 인가조건으로 신탁재산을 통한 대출업무 수행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증권사 신탁계정에 대한 운용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이를 통해 신탁재산을 이용한 대출 업무가 가능해진다. 신용공여 성격보다 단순 자산운용 성격이 강한 대출을 허용해주는 경태다.

스스로 투자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자 성향 파악 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저축은행에 대해선 한도 6억원으로 설정된 동일인 여신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상환능력이 충분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함께 저축은행 임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도산 시 예금지급 연대책임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저축은행 지점이 여신전문출장소로 바뀌었더라도 기존 고객에게는 예금과 관련한 해지 업무를 처리해주기로 했다.

한편 복합금융점포에 보험사를 입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업보험사나 은행계열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증권사의 부동산 담보 신탁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살펴보겠다며 답변을 보류했다.

이밖에 프라임브로커의 증권 차입·대여시 이중담보 문제는 리스크 관련 보완 방안을 더 검토키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금융사 건의사항에 대한 법령해석이나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위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 중 하나"라며 "최대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상길기자 a well2938@metroseoul.co.kr

해운대 엘시티 조감도.

포스코건설, '해운대 엘시티' 수주

101층 복합 아파트

포스코건설은 지난 17일 엘시티와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 공사도급약정서를 체결,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일원에 101층 랜드마크 타워 1개동과 85층 주거 타워 2개동을 짓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가 2조7000억원을 넘는다.

랜드마크 타워에는 레지던스 호텔 561실과 6성급 관광호텔 260실이 들어선다. 주거 타워에는 882가구가 입주한다. 레저와 휴양, 쇼핑, 비즈니스를 아우르는 원스톱 리빙을 지향한다.

시행사인 엘시티는 중국건설사(CSCEC)와 지난 2013년 10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공사가 지연됐다. 2015년 4월 계약이 합의 해지됨에 따라 국내 유력 건설사들로부터 가격을 제출받은 후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수철 엘시티 대표이사는 "초고층 시공역량과 복합단지 개발 경험 뿐만 아니라 브랜드 가치, 기업의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스코건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황태현 포스코건설 사장은 "엘시티는 뛰어난 입지조건과 센텀시티, 동부산관광단지 등을 아우르는 완벽한 인프라를 갖춰 경쟁력이 매우 크다"며 "부산의 랜드마크로 건설해 포스코건설의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입증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또한 "현장에 대규모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토목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돌입하겠다"며 "오는 6월 이후 아파트 882가구 분양에 들어갈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송정훈기자 sgarden@

농협은행, 'NH-온라인패널' 모집

농협은행은 20일 금융소비자 보호와 소통강화를 위해 '제1기 NH-온라인패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NH-온라인패널'은 온라인을 통해 아이디어나 의견을 제안하는 고객들로,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보유한 고객이면 이달 말까지 농협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이후 농협은행은 300여명을 선발해 오는 5월부터 1년간 설문조사 참여, 아이디어 제안, 인터뷰 참여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패널활동을 운영할 예정이다.

백대원 영업추진부장은 "NH 고객패널을 통해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고객중심경영을 실천해 사랑받는 농협은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현대해상 난지도서 나무심기 봉사 현대해상은 지난 18일 서울 난지도 하늘공원에서 나무심기 봉사활동 '희망 한 그루 봄 심기'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임직원과 가족 17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난지도 자연 생태계를 되살리고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해상 제공

신한銀, 신한가족과 프로야구 관람

"일과 가정 조화 꾀한다"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은 지난 18일 은행 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프로야구를 관람하는 '2015 신한가족 은행가 있는 날' 행사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 마련된 것번째 행사로 개인의 성공과 조직 발전의 가장 기본은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룬 행복한 가정이라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이날 은행 직원과 직원 가족들 2300여명 잠실과 문학,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총 5개 구장에서 야구를 관람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직원들의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매년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늘 바쁜 업무에 고생하는 직원들이 일상 업무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KB금융그룹

"대한민국 3천만 고객이 KB국민은행을 선택한 이유"

퇴직연금 수익률 은행권 1위
주식형 펀드 3년 수익률 20.2% • 판매고 1위

고객님이 주신 믿음, 수익률로 보답합니다

저금리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금융의 평생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1등 수익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은행권 퇴직연금 수익률

주식형 펀드 판매잔고

• 동 수익률은 당행에서 판매하는 모든 주식형 펀드를 3년간 보유한 경우의 판매잔고 가중 평균 수익률로서 개별고객의 수익률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2014년 한국금융투자협회 기준)

A 12

작년 퇴직연금 운용 성적표
DC·DB 수익률 국민銀 1위

20 경제

시중 3년간 펀드 수익률
국민 20.2%로 나타나

※ 퇴직연금은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익의 배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펀드가입을 결정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투자위험,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과거 운용 성과가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KB 국민은행

CJ CGV, 올해 턴어라운드 원년되나

'어벤져스2' 효과·中 등 해외 성장성 기대
증권업계, 목표주가 잇따라 상향 조정

CJ CGV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올해 상반기 최고 기대작인 영화 '어벤져스 2'가 오는 23일 개봉을 앞둔데다 해외 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선 CJ CGV에 대해 "연결실적 기준으로 올해가 턴어라운드(급격한 실적 개선세) 원년이 될 전망"이라고 입을 모은다.

우선 CJ CGV는 '어벤져스 2' 효과를 톡톡히 볼 전망이다.

정희석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한달간 주가가 22% 오르는 등 단기간 주가가 빠르게 상승했지만 할리우드 대작의 개봉으로 2분기 실적 모멘텀이 예상된다"며 적극적인 매수 전략 유지를 추천했다.

그는 "올해 영화가 부족해 전국 관람객이 지난해 보다 7% 감소했음에도 1분기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19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비용 통제 효과와 평균 티켓 가격(ATP) 상승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윤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도 "오는 23일 개봉 예정인 '어벤져스 2'의 흥행 기대에 따른 주가 상승 모멘텀을 기대한다"면서 "최근 3년간 1000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흥행작들이 개봉한 이후 약 한 달여 동안 CJ CGV의 주가 상승률은 10%로 코스피를 8pp1 아웃퍼폼(시장수익률 상회)됐다"고 설명했다.

중국·베트남 등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성도 긍정적인 요소다.

김윤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아직 영화 관람이 보편화하지 않은 중국 시장을 선점한 효과가 앞으로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CJ CGV는 2006년 중국 상영관 사업을 시작하고, 2013년부터 출점을 대폭 늘리는 등 한국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내 프리미엄 브랜드 구축에 성공한 상황"이라며 "오는 2018년에는 상영관 수가 150개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한 사람당 영화 관람 횟수는 4.2회, 중국은 0.5회를 기록했다"면서 "중국 영화시장 성장에 대한 의문은 없다"고 판단했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도 "CJ CGV가 국내는 물론 중국, 베트남 시장을 통해 성장을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성 연구원은 "베트남 CGV는 박스오피스 점유율 49%로 1등"이라며 "지난 2011~2014년 베트남 CGV는 두배 성장했고, 2015~2018년 다시 두배 성장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CGV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2%로 중국에 상장된 1등 기업인 완다시네마의 13% 수준 밖에 안된다"면서 "CGV가 중국에서 아직 적자지만 올 4분기에 흑자 전환하면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CJ CGV에 대한 목표가도 잇따라 상향 조정됐다.

대신증권은 목표주가를 9만6000원으로 제시했고,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목표주가를 기존 7만2000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했다.

IBK투자증권은 기존 7만2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한국투자증권은 기존 7만5000원에서 8만6000원으로 각각 올렸다. HMC투자증권도 종전 7만8000원에서 8만5000원으로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하이투자證 "IRP 가입하면 상품권 지급"

하이투자증권은 적립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거나 타사 연금저축계좌를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여행상품권과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Yes, IRP 이벤트'를 오는 7월31일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적립IRP와 연금저축계좌는 연 700만원까지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연간 최대 92만4000만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어 직장인의 노후자금 준비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적립 IRP 계좌만 개설해도 추첨을 통해 100만원(1명), 50만원(2명) 여행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적립 IRP 계좌를 개설하고 거치식으로 100만원 이상 가입하거나 적립식으로 10만원 이상 1년 자동이체를 한 고객에게는 2만원권 모바일문화상품권(450명)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이벤트 마지막달인 7월에는 1만원권 모바일문화상품권(150명)을 증정한다.

또 타사 연금저축계좌 500만원 이상을 하이투자증권으로 이전한 고객 선착순 200명에게 3만원 모바일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유리한 세제혜택이 많은 연금상품 가입 이벤트를 통해 근로자의 연말정산 준비와 은퇴 자산관리를 지원하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보배기자

NH투자證, 최신 스마트폰 지원 이벤트

NH투자증권(대표이사 김원규)이 오는 6월 30일까지 '스마트한 당신에게 필요한 ix스마트폰 지원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NH투자증권 고객이 지정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월 100만원 이상 주식을 거래하면 최대 25만원의 스마트폰 지원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특히 최근 출시된 갤럭시S6, 갤럭시S엣지,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 등의 최신 스마트폰을 NH투자증권ix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다. 또 주식 거래 시 지원금도 제공된다.

이벤트에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은행에서 NH투자증권 계좌를 개설한 후 NH투자증권 ix홈페이지(www.myix.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재우 NH투자증권 Smart금융본부장은 "코스피가 21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시장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식거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스마트폰 거래 고객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고객의 투자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배기자

코스닥 강세 소외株 '다음카카오', 반등 기대
콜택시 사업 성공·대리운전 진출·'은산분리' 완화 등 호재

증시 활황에도 유독 소외됐었던 다음카카오 주가가 지난주부터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다음카카오의 신규 콜택시 사업이 안착했다는 평가, 대리운전 사업으로의 확장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의 인터넷은행 도입 의지도 동력을 잃었던 다음카카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0일 코스닥시장에서 다음카카오는 전날대비 1500원(1.31%) 상승한 11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은 전일보다 3.64% 올라 6조812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6일 장중 한때 10만5800원까지 떨어진 이후 소폭이지만 오름세는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다음카카오는 올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코스닥 랠리에서 '왕따'나 다름없었다. 코스닥이 1월 2일 종가기준 553.73에서 지난 17일 706.90포인트로 27% 상승하는 동안 다음카카오 주식은 13만7200원에서 11만4500원으로 16% 역주행 했다. 다음카카오는 같은 기간 3만9150원에서 8만7500원으로 123% 급상승한 셀트리온에 시총 1위 자리를 내주고 2위로 밀려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다음카카오의 신사업 투자와 과도한 마케팅에 따른 부담에 따른 리스크를 오랜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HMC투자증권은 최근 "다음카카오는 신규 서비스 안착을 위한 마케팅 비용 증가 등으로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다소 밑돌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편에서는 최근 카카오톡 주가가 10만원선 까지 떨어지며 바닥을 확인한 후 반등에 들어갔다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지난달 31일 콜택시 사업에 진출한지 보름 만에 6만3000대의 콜택시 중 4만여 대를 카카오택시로 확보하며 절반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했다. 더불어 콜택시 시장보다 규모가 30배 큰 대리운전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이끌고 있다.

최찬석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다음카카오는 콜택시 사업 진출 15일 만에 시장점유율 63%를 자지할 만큼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데다 고객 반응도 우호적"이라며 "인접 시장인 대리운전으로의 진출이 예상됨에 따라 신규 사업을 위한 마케팅 비용은 긍정 평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최 연구원은 이어 "현재 대리운전 앱 중 1위인 버튼대리 다운로드 수는 30만 건으로 월간활동사용자(MAU)가 4000만명에 육박하는 카카오톡에 비하면 미미한 트래픽"이라며 "다음카카오가 수수료 기준 5000억원에 달하는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해 70%의 점유율을 확보한다면 연간 1800억원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힌 점도 다음카카오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오는 6월 말 열리는 금융개혁회의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정보통신(ICT) 업체들이 은행 지분 소유를 4%로 제한한 규제를 30% 이상까지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다음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음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가장 큰 수혜업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보배기자 bo@

얽히고설킨 정경유착… '경제독립' 선언하라

| 전문가 진단 | 제2의 성완종 게이트 막으려면

'규제 칼날 쥔 정치권 기업활동에 영향력 커 관리시스템 개혁 필요

"돈이면 뭐든지 된다" 천민자본주의도 문제

정경유착을 넘어선 정경일체의 권력형 비리가 정권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른바 천민자본주의는 돈이면 뭐든지 해결된다는 생각으로 돈을 굴려 모든 기업가가 정치권 등과 결탁해 자본 투기, 불공정 거래 등을 자행하면서 경제 생산력과 경제 효율성을 동시에 떨어트린다. 또 이런 퇴계적인 사회 구조를 회복시킬 비용이 크게 들어 또 한 번 중복적으로 경제 효율성이 떨어진다.

기업인들은 정치권에 줄을 대 사업을 하고 정·관계는 뒷돈을 받고 그들을 비호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에게 뇌물을 바치는 기업인들이 사라지게끔 특단의 정치·경제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반복되는 흑역사 정권게이트 또 터져

"너무 인타깝고 안 된 일이며 마음이 아프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 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 의원이 성완종 게이트를 묻는 기자에게 한 첫 말이자 마지막 대답이다.

권력 중심에 있었던 정·관계 인사들은 게이트가 터질 때마다 항상 앞을 이끌었다. 동시에 살아있는 권력에 뇌물을 바친 기업인들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처벌됐다.

20일 정치권과 경제계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기업인들에게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220억원,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에게 220억원,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에게서 150억원 등을 받아 챙겼다.

김 전 회장은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도 연루됐다.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김 전 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 8명을 포함한 기업인 35명이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996년 1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나 무죄로 풀려났다.

문민정부때도 마찬가지였다. 재계 순위 14위였던 한보그룹이 1997년 5조7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부도를 냈다. 이른바 한보사태 수사 과정에서 정태수 전 회장은 '소통령'으로 불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김대중 정부의 집권 3년차에는 진승현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레임덕을 불러왔다. MCI코리아 부회장이었던 진승현씨의 불법대출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 측근이 대거 연루된 의혹이 불거졌다.

이어 발생한 '이용호 게이트'는 2001년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하고 보물선 발굴 사업 등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시작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가 이 전 회장에게서 이권청탁의 대가로 47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부른 '박연차 게이트'는 노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였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발단이 됐다. 세무조사 무마 의혹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에서 박 회장이 수많은 여야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구속됐다.

이명박 정부에선 이른바 '영포게이트'가 불거졌다. 이 전 대통령의 고향인 영일·포항 출신 인사들이 각종 인허가 등 비리에 연루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정치권력이 시장에 개입하는 규제 타파해야

전문가들은 더 이상 성 전 회장 같은 기업인이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력이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각종 규제도 타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 한보사건 특별조사위원을 지낸 김경재 청와대 홍보특보는 "천민자본주의의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자본주의) 시스템 개혁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발전은 한계점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성 전 회장 같은 사람들이 다시는 우리나라에 발붙일 수 없는 자본주의의 진정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특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리라고 희망한다"며 "대통령이 귀국하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근원적인 재검토의 구상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필상 유한재단 이사장(전 고려대 총장)은 "사실 우리나라는 정격유착의 뿌리가 깊어 기업인들의 사업활동은 정치권이나 정부관리들의 영향력 아래서 이뤄진다"며 "정격유착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각종 규제를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부정 부패를 해소하는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며 "동시에 경제부문에서 각종 규제개혁과 시장평가에 따른 합리적 금융시스템이 정착돼야 하고 투명한조세제도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권력의 기획·표적 수사 등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선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지나친 기업들에 대한 사정이나 기획수사가 결국 기업인들에게 뇌물공여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llegible]기자

SK그룹 "옥상옥 구조 혁신… 위기 정면 돌파"

SK C&C와 합병

SK그룹이 SK C&C와 SK㈜를 합병키로 한 것은 그룹의 지배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물론 그룹의 안정적 후계구도 마련을 위한포석으로 보인다. SK그룹 지주회사 체제가 옥상옥 구조로 이뤄져 있기에 지배구조 관련 논쟁을 바루뿌리 해소하고 실적 악화로 고전하는 그룹의 위기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SK㈜는 그룹의 지주회사이지만 SK㈜의 최대주주는 SK C&C이다. SK C&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분 32.9%를 보유해 SK그룹 지배 구조의 최상위에 있다.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은 0.02%(1만주)로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1만1695주)보다도 낮지만, 최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SK C&C를 통해 사실상 그룹 전체를 지배해 다소 기형적인 지주회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SK C&C와 계열사 간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오너 재산 불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합병으로 최태원 회장이 합병회사의 직접 대주주가 되면서 SK그룹은 그동안 최 회장→SK C&C→SK㈜→사업회사'로 연결되는 복잡한 구조가 '최 회장→합병회사→사업자회사'의 간편한 형태로 바뀐다. 합병이 성사되면 최 회장 지분은 32.9%에서 23.2%로, 최기원 이사장 지분도 10.5%에서 7.4% 정도로 떨어진다.

그러나 두 사람의 지분을 합치면 여전히 30%를 넘게 돼 경영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SK그룹은 오는 6월 26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8월 1일 두 회사의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합병회사 사명은 'SK주식회사'를 쓰기로 했다.

합병회사는 총자산 13조2000억원을 갖춘 그룹의 지주회사로 거듭나며 ICT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지주회사 형태로 바뀌게 된다.

SK는 이번 합병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인 ICT 사업이 크게 확대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SK C&C 인력 규모는 2005년말 2천19명에서 작년말 4천63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협력업체도 2005년말 459개에서 작년말 618개로 늘었다.

SK C&C는 국내 3대 보안회사 중 하나인 인포섹, 중고차 거래회사 SK엔카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로 주로 정보기술(IT) 인터넷 보안, 유통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llegible]기자

현대차 투싼ix 수소연료자동차(FCV)

현대車, 수소차사업 '거북이 걸음'

18년째 개발 진행중

2013년 2월 현대자동차그룹은 수소연료전지차 전용공장을 완공하고 세계 최초로 투싼ix 수소차 양산체제에 들어갔다. 토요타, GM 등 세계 유수의 업체들을 따돌리고 이룬 쾌거였다. 당시 야심찬 목표도 세웠다. 올해까지 총 1000대를 판매한다는 것. 하지만 현재까지 200여대를 판매했다. 현대차는 지난 1998년부터 수소차 개발에 착수해 지금까지 18년째 사업을 진행 중이다.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경제적 관점에서 뛰어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충전 시간이 짧고 1회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전기차보다 길고 성능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차와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수소차 사업을 평가하기에는 시장 규모가 너무 작아 이른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20일 현대차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외 총 200여대의 투싼ix FCV가 판매됐다"고 전했다. 이마저도 대부분 해외에 보급돼 국내에서는 좀처럼 투싼ix를 찾아보기 힘들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수소차는 민간 보급 계획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보급되는데 현재까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33대가 보급됐다. 올해에는 73대 보급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국내 수소차 시장 크기가 너무 작아 사업성과를 논하기엔 시기상조라 서울모터쇼에서도 수소자동차 관련 부품을 전시하지 않았다"며 "현재 투싼ix 가격(8500만원)도 비싼 편이라 수요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illegible]기자

팬택, 3차 공개 매각마저 불발

법정관리 중인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팬택이 3차 매각에 실패하면서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20일 "업체들이 제출한 인수의향서를 검토한 결과 인수의향서가 유효하지 않거나(형식적 기재사항 미비) 실질적인 인수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이에 따라 후속 입찰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팬택의 공개 매각 마감일인 지난 17일 국내외 3곳 업체는 매각 주간사인 삼정회계법인과 KDB대우증권 측에 인수의향서를 냈다.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인수의향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마감 시각을 코앞에 두고 인수의향업체 3곳이 나타났다.

그러나 결국 3차 공개 매각마저도 불발되면서 팬택은 기업청산이라는 위기를 맞았다.

법원은 향후 절차는 관리인과 채권자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4차 공개 매각이 이뤄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삼성 스마트폰 배터리 폭발사고 논란

KBS "1m서 떨어지며 폭발"
삼성 "고의적 충격없이 불가"
리튬이온배터리 안전성 도마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KBS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는 카트에 올려놓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갑자기 배터리가 폭발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고의적인 외부 충격 없이 1m 높이에서 떨어진 제품이 폭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이제껏 스마트폰 배터리 폭발 사고는 그동안 수차례 발생했다. 하지만 전자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고는 기존에 발생한 폭발 사고와 다르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발생한 배터리 폭발 사고는 보조배터리를 가방에 넣어두거나 충전 중에 발생했지만 이번엔 휴대폰에 탑재된 배터리가 폭발했다는 점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전자 업계 관계자는 "기존 배터리 폭발 사고와 (스마트폰에) 결합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며 "그동안 사례를 보면 날카로운 것에 찍히거나 애완 동물이 물었을 경우 액체로 된 양극제와 음극제를 분리해주는 분리막 파손으로 배터리 폭발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건 정밀 감식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스마트폰에 연결된 상태에서 폭발한 것은 충격보다 제품의 전류 문제나 내부 발열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LG전자 G3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도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배터리 폭발은 스마트폰에 탑재된 상태가 아닌 충전 중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경록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팀 연구위원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배터리 사고에 대한 소비자 신고 접수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며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외부 충격이다 내부적으로 열이 발생하면 스웰링현상(배터리 내부에 가스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폭발할 수 있다. 외부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학업계 관계자는 "리튬이온배터리는 외부에서 압력이 가해지면 양극과 음극의 물질이 만나 합선에 의해 불이 붙게 된다"며 "내부 과산화물의 산소와 가연성 유기전해질이 반응해 급격히 연소해 폭발이 일어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 리튬이온전지는 완전체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시리즈 중 일부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문제가 발생해 해당 배터리에 대한 무상 교환을 실시한 바 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갤럭시S6, 배터리 교체비용 S5보다 1만원 비싸

갤럭시S6 (사진) 내장형 배터리를 교체하고 싶은 소비자는 갤럭시S5보다 만원 가량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교체하기 위해 배터리만을 구매할 수 없다.

지난 10일 출시된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에는 내장형 배터리가 채택됐다. 배터리 용량은 각각 2550mAh, 2600mAh이다.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갤럭시S6의 배터리 교체시 배터리 가격 2만5500원과 공임비 9000원을 포함해 총 3만4500원의 비용이 든다.

갤럭시S6 엣지의 경우 갤럭시S6의 배터리 가격보다 500원이 더 비싸 총 3만5000원의 비용이 든다.

지난해 3월 출시된 갤럭시S5는 착탈식 배터리를 채택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배터리만을 구매할 수 있었다. 갤럭시S5 배터리의 용량은 2800mAh, 가격은 2만5000원이다.

하지만 갤럭시S6와 S6엣지의 이용자는 배터리만을 구매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배터리를 교체하기 쉬워 소비자가 갤럭시S6를 분리하게 되면 액정이 휘어서 깨질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 콜센터의 설명이다.

갤럭시S6는 액정, 터치패널, 메인보드, 케이스의 테두리가 접착제로 붙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비스센터에서 장비로 스마트폰에 열을 가한 후 기계로 집어 들어올려서 분리해야 한다.

배터리 교체 후에는 접착 작업이 진행된다. 배터리 교체에는 1시간 정도 소요된다.

갤럭시S5 등에 채택됐던 외장형 배터리는 액세서리로 분류돼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갤럭시S6와 S6엣지의 내장형 배터리는 수리 물품으로 분류된다.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IT매체 PC매거진은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의 배터리는 보증기간이 1년이다. 이 기간 내에 배터리 성능이 80% 이하로 떨어지면 교체 비용은 무료라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PC매거진은 갤럭시S6의 배터리 교체비용은 45 달러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들은 바가 없다"며 "배터리 관련 서비스 정책이 나온 게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정은미기자

"G4, 예약 하실분~" LG전자, 내일부터

LG전자가 전략 스마트폰 'G4' 출시에 앞서 22~28일 국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예약 판매를 한다.

LG전자는 예약 구매 고객을 포함해 다음달 31일까지 G4를 개통한 고객에게 액정 무상교체 서비스를 한다. 이 기간에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후 1년동안 1회에 한해 파손된 액정을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또한 통신사에 관계없이 G4를 개통한 모든 예약 구매 고객에게 64GB 외장 메모리카드도 증정한다.

'G4' 예약 판매는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된다.

SK텔레콤은 공식 온라인 쇼핑몰 T월드 다이렉트에서 예약 판매를 실시하며 추첨을 통해 예약 고객 중 1000명에게 셀카 렌즈, 셀카봉, 방수파우치 등이 포함된 카메라 팩을 증정한다. KT는 추첨을 통해 스마트워치 LG 워치 어베인 100대를 예약고객에게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전국 매장과 홈페이지에서 예약 판매를 실시한다. 예약고객에게 스마트폰과 TV 등을 연결할 수 있는 [illegible]을 증정한다.

조준호 LG전자 MC사업본부장(사장)은 "'LG G4'는 G3를 통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을 받은 화질과 카메라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려 지금의 다른 비주얼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G4에 뜨거운 관심이 예약 판매에도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은미기자

프로농구단 울산모비스의 함지훈(왼쪽 두번째) 선수와 양동근(오른쪽) 선수가 경기도 이천 임실치즈스쿨을 방문한 아이들의 휠체어를 끌어주고 있다. /현대모비스 제공

현대모비스 농구★, 장애아동과 힐링여행

현대모비스는 장애아동 권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1박2일간의 장애아동 가족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이번 가족여행은 장애아동 15명과 그 가족들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대모비스 임직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과 울산모비스 피버스 프로농구단 소속의 양동근, 함지훈, 박구영 등 선수와 그 가족들도 여행 도우미로 참여했다.

아동의 제약 때문에 가족여행이 힘들었던 장애아동과 가족들은 TV로 [illegible] 접했던 농구스타들과 함께 여행하며 뜻 깊은 시간을 나눴다.

여행 첫날은 용인 에버랜드에서 사파리 월드, 서커스 뮤지컬 쇼 등 공연을 관람하고 가족별로 자유여행을 즐겼다.

둘째 날은 이천시 박물관과 이천 치즈스쿨을 방문해 직접 치즈와 피자를 만드는 등 체험학습을 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부터 푸르메재단 및 (주)이지무브와 협력해 교통사고 또는 선천적인 이동장애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장애아동 50여명을 지원하고 있다.

/이승용기자

김승연 회장의 태양광 사랑, 美서 결실

한화큐셀, 모듈공급계약

한화큐셀이 지난해 4월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헤이우드에 설치한 10.86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공을 들여온 태양광 사업이 미국에서 결실을 보았다.

한화큐셀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전력회사인 넥스트에라 에너지에 올해 4분기부터 2016년 말까지 총 1.5GW의 모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1.5GW 규모의 모듈 공급계약은 태양광 업계 단일 공급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1.5GW의 모듈이 모두 설치된 후의 발전량은 대구광역시 전체 한 구(약 250만명)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넥스트에라는 한화큐셀로부터 공급받는 모듈 전량을 미국 내에 건설 예정인 자체 태양광 발전소에 사용할 예정이다.

양사는 2017년 이후 넥스트에라가 건설하는 태양광 발전소에도 한화큐셀의 모듈을 공급하기 위해 내년 여름까지 우선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을 이번 계약 내용에 포함시켰다.

이번 대형 계약 수주를 통해 한화큐셀은 안정적인 제품 공급과 함께 추가 사업 확장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남성우 한화큐셀 대표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한화큐셀은 전세계 태양광 주요 시장인 미국에서 선도 태양광 업체로서의 존재감을 알림과 동시에 미국 태양광 시장 본격 개척의 포문을 열게 됨으로써 시장 점유율 1위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만도 피엔텔 넥스트에라 사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회사인 넥스트에라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승용기자

"현대제철 쇳물추락사 산업재해 판명"

안전보건공단 "안전난간 설치 미흡 원인"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최근 일어난 근로자의 쇳물 분배기 추락사고는 난간 등 안전장치 설치가 미흡해 벌어진 산업재해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해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

20일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단에서 받은 '재해조사 의견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미설치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 등으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으니 체인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재해 당일에는 체인을 체인 고정 걸이에 걸어놓지 않은 상태로 작업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조사자 의견에서 "래들(쇳물을 담는 용기)과 작업 바닥면의 간격이 약 1.15m, 래들 덮개 대차 바부 바닥면과 쇳물 분배기의 쇳물 주입구가 약 2m 높이로 돼 있어 작업 중 추락 또는 전락에 의한 재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재해자가 사용했던 작업용 산소파이프가 휘어진 점에서 추락 시 이에 부딪힌 것으로 추정했다.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3조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법 23조(안전조치) 3항을 보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3고로에서 방열복을 입은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같은 법 66조의2(벌칙)에 적시됐다.

공단은 재해예방 대책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통로의 끝과 작업발판이나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근무하던 이 모 주임은 작업 중 쇳물 분배기로 떨어져 변을 당했다.

현대제철에서는 수년간 근로자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이를 은폐한 정황도 드러나 강력한 처벌과 함께 특단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는 종합안전보건진단이 진행 중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측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조사에 협조하고 있고 시정명령은 모두 이행할 것"이라며 "유가족과의 협의는 마무리됐다. 추후 나올 사고에 대한 확정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민걸기자 rumun@metroseoul.co.kr

"구조조정·강제퇴출교육 즉각 중단하라"

현대重 노조 기자회견 권오갑 사장 퇴진 요구 사측 '전문가 양성교육'

희망퇴직을 거부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무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둘러싼 현대중공업의 노사(勞使)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20일 오후 2시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 정문에서 구조조정 중단 및 권오갑 퇴진 서명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울산 본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구조조정과 강제퇴출교육을 즉각 중단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병균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은 "현대중공업이 세계 1등 조선소로 성장하는데는 고용이 안정된 회사를 믿고 일한 노동자가 있었다"며 "퇴출 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지인 직무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경영실적 악화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 "부실경영의 책임은 최대주주인 정몽준에게 잘 보이려는 경영자들의 단기적 성과주의 때문"이라며 권오갑 사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같은 날 현대중공업은 회사소식지 '인사저널'에서 "직무 역량 향상 프로그램은 설계사원 업무량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전문 인력양성교육"이라고 밝혔다. 이어 "퇴출교육이라고 주장하는 노조는 무책임한 비방과 선동을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측은 직무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는 사원들도 직무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성장과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최근 직무 역량 향상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받던 3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며 "인력을 야금야금 잘라내려는 일종의 정리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에서 희망퇴직 거부자들 85명을 대상으로 두번째 직무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양소리기자 Ilsoum1@

KT "3배 빠른 와이파이 써보세요"

'기가 와이파이 홈' 무료 체험

KT는 일반 와이파이 대비 3배, LTE 대비 12배 빠른 '기가 와이파이 홈'의 속도를 고객이 직접 비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가 와이터' 이벤트를 20일 전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서울시 종로구의 올레스퀘어에서 벌인다고 밝혔다.

기가 와이터는 고객 두 명씩 짝을 이뤄 일반 와이파이와 기가 와이파이 홈을 각각 선택하고 속도를 비교 체험하는 게임 이벤트다.

이벤트 참여한 고객들을 위해 푸짐한 경품도 마련했다. 참여자 전원에게 에너지 드링크가 제공되며 개인 SNS에 게임 인증샷을 공유하면 호텔 식사권, 외식 상품권, 영화 관람권 등 다양하고 풍성한 경품을 준다.

강이환 KT 마케팅부문 디자인담당 상무는 "통신의 메카이자 서울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올레스퀘어에서 게임이라는 신선한 방식으로 고객들이 기가 와이파이 홈의 빠른 속도와 우수한 품질을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강조했다. /이보라기자 lbr00@

KT는 오는 30일까지 서울 세종로 올레스퀘어에서 일반 와이파이보다 3배 빠른 '기가 와이파이 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명이 일반 와이파이와 기가 와이파이 홈을 각각 선택해 속도 게임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 /KT 제공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 1만1000TEU급 컨선 6척 수주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가 수주 대박을 터뜨렸다. 사측은 유럽 이시아 소재 선주사와 1만1000TEU급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다고 20일 밝혔다. 1만1000TEU는 6m 길이의 컨테이너 1만1000개를 동시에 실을 수 있는 규모다. 한진중공업은 4월 들어서만 초대형 컨테이너선 9척, 총 1조1000억원 상당의 수주 물량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에 수주한 컨테이너선은 길이 330m, 폭 48m, 깊이 27m 제원으로 22노트의 속력으로 운행되는 최신 선형이다. 선체 프로펠러 최적화 설계를 적용한 고연비 친환경(eco-ship) 선박으로 수빅조선소에서 건조 후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오랜 컨테이너선 건조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형선 연속 건조에 따른 수익성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며 "올해 영도조선소까지 본격 정상가동되면서 향후 실적개선뿐만 아니라 대외 신인도 상승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대형 상선 중심의 수빅조선소와 중형상선 및 특수선 중심의 영도조선소의 투트랙 체제 확립을 통해 글로벌 생산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세계적 조선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양소리기자

유령백화점된 신세계 본점, 고객수 셀 정도

대대적 리뉴얼에도 식품관도 한산 "다른 매장에 비해 매출 가장 낮아"

"내수 경기가 죽어서 그런지 평일에는 거의 사람이 없어요. 주말에도 손님이 많은 편은 아니고요. 명품관요? 그쪽은 손님 보기 힘들어요"

지난 18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소공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점장 김정식) 신관 1층 화장품 잡화 매장. 고객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의 활기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주말인데도 백화점이라기보다 조용한 갤러리 같은 느낌이다. 손님보다 매장 직원 수가 더 많아 보였다. "왜 이렇게 손님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 매장 직원은 "내수 경기 탓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산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다른 층의 매장을 둘러 봤지만 역시 을씨년한 기분마저 들 정도로 고요했다. 백화점의 주력 상품인 여성의류·잡화 매장이 입점해 있는 2층~4층도 손님을 보면 반가울 정도다. 드넓은 매장을 채운 손님 수는 열 손가락에 꼽혔다.

한 여성복 매장을 유심히 살펴봤다. 한 시간 반이 지났지만 옷을 사러오는 손님은 한 명도 없었다. 10여 분 후 한 주부 고객이 옷을 집어 들었다 놓는 것이 전부였다. 눈에 띄는 고객들도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신세계백화점의 의도와 달리 값싼 곳만 찾고 있었다. 매장 앞과 에스컬레이터 앞에 놓인 매대에 놓인 할인 상품만 찾아 다니는 모습이다.

7층 남성 명품 매장에선 남성 패션 행사인 '맨즈 위크' 홍보물들이 즐비했지만 손님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명품관 답게 깔끔하게 자리잡은 세련된 직원들이 줄 지어 서있는 매장은 일반 손님들에게 위압감 마저 느끼게 했다. 조용한 도서관을 방문한 느낌마저 들어 혹시 거슬림이라도 하게 될까 조심스럽다.

19일 오후 신세계본점 남성 명품 매장. '맨즈위크'라는 대형 판촉 행사가 진행중인 주말인데도 고객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나마 고객들이 찾는 곳은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매장이거나 위스키 전시와 시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글렌피딕 퓨얼 라운지뿐이다.

9층 가전 가구 매장 역시 노트북 매장 앞에 손님 2명이 가격을 둘어보고, 한 쌍의 신혼부부가 가구를 구경하는 것이 전부였다.

10층 식당가도 한산한 모습이다. 그나마 신세계 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주말 저녁 식사 메뉴 30% 할인 행사가 진행중인 11층 그레이스홀에선 고객들을 다소 볼 수 있었다.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와 마지막으로 찾은 지하1층 식품관. 지난해 수개월간 리뉴얼을 거쳐 공을 들여 오픈한 프리미엄 공간이지만 고객들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5월 신세계가 엄선한 식재료를 모은 슈퍼마켓, 국내외 맛집을 모은 고메스트리트, 해외 유명 디저트들을 한데 모은 프리미엄 디저트존, VIP와 관광객을 위해 선물용 먹을거리를 살 수 있는 기프트존 등을 선보였다. 하지만 고객들을 볼 수 있는 곳은 제주산 농수산물과 축산물 코너뿐이었다. 신세계 측이 타깃으로 삼았던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고객도 거의 볼 수 없었다.

이렇게 백화점에 사람이 없는데 입점 업체 측 피해는 없을까. 백화점 내 한 입점 업체 관계자에게 신세계백화점 본점 매출에 대해 물었다. "다른 매장에 비해 신세계 백화점 본점의 매출이 가장 낮다"는 답이 돌아왔다.

/김설환기자 minus@metroseoul.co.kr

집에서도 브런치 메뉴 즐기세요 CJ제일제당이 집에서도 간편하게 브런치 메뉴를 즐길 수 있도록 출시된 슬라이스햄 '더 건강한 브런치 슬라이스'를 내놨다. 20일 오전 서울 중구 CJ제일제당 본사에서 모델들이 제품을 시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NS홈쇼핑 "공영홈쇼핑과 협업"… 업계 "글쎄"

NS홈쇼핑이 오는 7월 개국하는 공영홈쇼핑(가칭 제7홈쇼핑)과의 협업을 강조하고 나섰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축산물을 주로 취급 할 예정이다. 실제적으로 NS홈쇼핑과 상품군이 많이 겹쳐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업계는 협업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한다.

도상철(사진) NS홈쇼핑 대표는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수축산업 발전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관련 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조만간 개국하는 공영홈쇼핑사와도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표는 "공영홈쇼핑 출범으로 NS홈쇼핑 사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지만 7홈쇼핑이 협업하면 오히려 국내 농축수산업 발전에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S홈쇼핑은 공영홈쇼핑과의 협업 방안으로 지난 15년간 농수축산물 유통을 해온 품질관리 노하우 공유를 제시했다. 이외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공영홈쇼핑 운영에 대한 방안이 구체화 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실제적으로는 경쟁 관계인데 협업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나 공영홈쇼핑이 중소기업 제품 유통 채널 확보와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던 홈앤쇼핑이나 농수산홈쇼핑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지면서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축산물을 주로 취급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은미기자 21cindy@

"굵다"… 농심, 3mm 면발 '짜왕' 출시

농심(사장 박준)은 다시마를 넣은 굵은 면발에 한층 고급화된 3종 스프가 특징인 프리미엄 짜장라면 '짜왕'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짜왕은 맛도 최고, 면발도 최고인 짜장이라는 의미다.

프리미엄 짜왕의 가장 큰 특징은 면발이다. 짜왕의 면 굵기는 우동면과 비슷한 3mm 정도로, 일반라면(1.6mm)의 약 2배, 너구리(2.1mm)의 약 1.5배에 이른다.

여기에 국산 다시마로 면발의 식감과 맛을 더욱 살렸다. 다시마에 함유된 천연점성물질인 알긴산은 면을 더욱 탱탱하고 쫄깃하게 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짜왕의 수프는 수제 간짜장 맛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 개발됐다. 200℃ 이상 고온에서 짧은 시간에 재료를 볶고(고온 쿠킹) 저온에서 농축시킨 뒤 맛과 향만 남기고 수분을 제거(치오드레이션 기술)해 갓 볶은 짜장의 맛을 수프에 담았다는 설명이다. 짜왕 가격은 편의점 기준 개당 1500원이다.

하림, 내년 재벌 반열 오른다

닭고기 가공업체 하림이 내년 본 공정거래위 지정 대기업 집단에 편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하림은 6월 팬오션 인수 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현재 4조3000억원 규모인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어 내년 4월 공정거래위가 지정하는 대기업 집단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집단에 편입되면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에 제한을 받는 등 각종 규제에 묶이게 되지만 공식적으로 대기업 반열에 들어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하림은 대기업집단 편입에 대비해 그룹 차원의 홍보 인력을 강화하고 새로 발생할 각종 규제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하림그룹의 계열사는 닭 가공업체인 하림과 사료전문업체 제일사료, 양돈 전문업체 팜스코, 홈쇼핑업체 엔에스쇼핑(NS홈쇼핑) 등 총 31개다. 이 중 지주회사인 하림홀딩스를 비롯해 하림, 팜스코, 선진, 엔에스쇼핑 등 5개사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다.

한편 김홍국(57·사진) 하림그룹 회장은 11살 때 외할머니가 사준 병아리 10마리에서 시작해 대규모 육가공기업을 일군 인물로 유명하다. 김 회장은 당시 병아리를 키워 닭 10마리를 판 돈으로 병아리 100마리를 다시 사고 그 병아리를 또 키워 파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돼지 18마리를 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1978년 전북 익산시 황등면의 육계농장을 설립했고 1986년에는 하림식품을 세워 사육·사료·가공·유통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왔다.

/김보라기자 bora@

당신의
은퇴는
쾌청합니까?
퇴직연금과 체크카드가 만났습니다
금융수익에 추가 적립혜택까지
able i max Card
퇴직연금상품
연 12%
700만원
체크카드 소득공제
30%
i max
현대증권

휠라 골프, '젤라또 티셔츠' 출시 휠라 골프는 이탈리안 아이스크림 '젤라또'의 주 원료인 과일과 천연재료에서 영감을 얻어 시원하고 밝은 컬러감을 극대화한 '젤라또 티셔츠'를 20일 출시했다. 휠라 골프 도곡점 매장에서 모델들이 티셔츠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빙수'로 때이른 여름사냥

작년보다 앞서 출시 이색 재료로 승부수

식품·외식업계가 지난해보다 여름 빙수 출시 시기를 앞당겼다. 이색 재료를 활용한 빙수는 물론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테이크아웃까지 다양한 빙수를 봄부터 출시하며 여름까지 기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와 투썸플레이스는 각각 우유얼음을 활용한 타르트 빙수와 케이크 빙수를 출시했다.

뚜레쥬르 타르트 빙수는 밀가루와 버터 등을 반죽해 얇게 펴서 만든 타르트 파이 위에 우유빙수를 올린 제품. 강남역점, 대학로점·가로수길점 등 5개 직영점에서 선보였다. 투썸플레이스는 자몽무스케이크와 자몽·베리류로 맛을 낸 자몽베리케이크빙수, 티라미수 케이크와 커피빙수를 담은 티라미수케이크빙수와 콩빙수, 로얄밀크티 빙수 등을 내놓았다.

엔제리너스커피는 쌀시리얼과 팥·콩가루가 잘 어우러진 순수 콩빙수와 수정과와 달콤한 홍시시럽에 버무린 쫄깃한 감 말랭이가 특징인 수정과 빙수 전통 빙수 2종을 출시했다. 상큼한 자몽과 유자, 트로피칼 젤리가 어우러져 시트러스향이 물씬 풍기는 세븐 타입의 유자몽 빙수, 새콤달콤한 복숭아와 망고, 트로피칼 주스가 어우러진 피치망고 빙수, 아이스홍시와 아이스크림, 달콤한 꿀이 조화를 이룬 홍시 빙수 등 과일 빙수 3종도 선보였다.

탐앤탐스는 여름 시즌 메뉴 솜사탕빙수 4종을 내놓았다. 특히 탐앤탐스 빙수는 눈꽃빙삭기로 부드럽게 갈은 우유얼음을 사용해 솜사탕처럼 입 안에서 부드럽게 녹는 것이 특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메뉴명 역시 솜사탕을 전면으로 내세우며 솜사탕망고유자, 솜사탕쿠키앤크림, 솜사탕블루베리요거, 솜사탕흑모찌팥으로 명명했다.

설빙은 1인용 컵제품 설~빙고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테이크아웃 뿐 아니라 매장 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며 혼자 즐기기에 적당한 양으로 싱글족에게 합리적인 제품이다. 기존의 컵빙수와 달리 티라미수·치즈케이크 등 조각케이크을 토핑으로 얹어 차별화를 시도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에버랜드, 인기 캐릭터 체험관 오픈

에버랜드는 25일 인기 캐릭터들을 모은 체험관 '캐릭토리엄'을 새롭게 오픈한다고 20일 밝혔다.

'캐릭토리엄'은 에버랜드가 픽스게임즈와 공동 개발하고 서울산업진흥원(SBA),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력해 선보이는 시설이다. 10종의 국내외 인기 캐릭터들과 체험 활동을 즐기고, 캐릭터 상품까지 구입할 수 있는 복합 캐릭터 전시·체험공간이다.

에버랜드는 매직랜드 지역 내 약 1600㎡ 규모로 캐릭토리엄·어트랙션·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된 '캐릭터 마을'을 조성했다.

2층 건물로 신설된 캐릭토리엄은 캐릭터 체험존, 캐릭터 체험교실, 상품점 등 3개 공간으로 꾸며졌다. 에버랜드에 입장한 손님 누구나 무료 입장 가능하며 일부 체험 시설과 체험교실은 교보재 구성에 따라 4000원에서 1만 5000원의 별도 이용료가 있다. 유료 프로그램은 캐릭토리엄 2층 매표소에서 현장 예매 후 이용할 수 있다.

하이마트, 에어컨 무상점검 서비스

롯데하이마트(대표 이동우)가 에어컨 사전 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에어컨 전문 설치기사인 CS마스터가 고객을 직접 방문해 실내외기 작동 점검, 필터 청소, 배관 설치 상태와 배수 호스 점검 등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지난 17일 열린 무상점검 서비스단 발대식에서 CS마스터들이 고객 만족을 다짐하고 있다.

제로투세븐, 中 직구족 공략

제로투세븐(대표 조성철)은 쇼핑몰 제로투세븐닷컴이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티몰 글로벌에 17일 단독 입점 계약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제로투세븐닷컴은 5월 11일 정식 오픈한다. 국내 유아동 기업이 운영하는 쇼핑몰이 글로벌 티몰에 입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로투세븐은 궁중비책, 균기저귀 등 국내외 30여 개 주요 브랜드를 순차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티몰 글로벌은 알리바바 그룹이 글로벌 브랜드 판매를 위해 만든 해외 직구 전자상거래 쇼핑몰이다.

이번 쇼핑몰은 티몰 글로벌 유아용품 카테고리 내 독립형 쇼핑몰(매장형 플래그십) 형태로 운영된다. 브랜드 및 품목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 브랜드 입점 형식과 차별화된다.

제로투세븐닷컴은 향후 자사 제품 뿐 아니라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협력 상품군의 판매를 도와 중국 내 한국 유아동 용품 대표 쇼핑 채널로 육성할 계획이다.

패션업계, 디자이너 '컬래버' 열풍

신진 디자이너와도 협업 차별화 된 디자인 선봬

패션 업계가 외부 디자이너와 협업을 통한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와 손잡는 한편, 신진 디자이너와 함께하며 기존 브랜드가 보여주지 못했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는 일본의 유명 디자이너 요지 야마모토와 협업한 'Y-3' 브랜드의 '롤랑 가로스 컬렉션(사진)'을 출시했다. 요지 야마모토는 만다리나 덕, 미키모토 주얼리, 에르메스 등의 명품 브랜드와도 협업한 바 있다. 이번 컬렉션은 2015 프랑스 오픈을 앞두고 진행한 것으로 조 윌프리드 송가-아나 이바노비치 등의 선수들이 경기에서 착용할 예정이다. 20일부터 아디다스 일부 직영 매장을 비롯해 총 7개 매장에서 판매된다.

아디다스 관계자는 "기술력과 디자인 두가지 측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꾸준히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디다스 비니스는 이번 요지 야마모토와의 협업 외에도 스텔라 매카트니와 함께한 제품 라인도 선보였다"고 말했다.

이랜드의 SPA(제조·유통·판매 일괄) 브랜드 미쏘는 이탈리아의 밀라노 스튜디오와 협업한 상품을 한정 수량 판매한다. 미쏘의 강점인 베이직한 스타일과 합리적인 가격에 이탈리아 특유의 색상과 디자인을 접목시켜 기존의 미쏘와는 차별화된 상품이다. 캐리비안 레트로 원피스와 비대칭 사선 지퍼가 포인트로 들어간 월 누보 락 라운드형 크롭 자켓이 9만9000원, 화려한 디자인의 트로피컬 스커트는 5만9900원이다. 선착순 1000명에게 밀라노 에코백도 증정한다.

초코파이 100만개 쏜다

오리온 情메시지 캠페인

오리온(사장 강원기)은 20일부터 7월 5일까지 초코파이 100만개를 나눠주는 '초코파이 情 메시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제품 뒷면의 QR코드를 찍으면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정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되며 그 이후 메시지를 전송하면 전송자와 발송자 모두 초코파이와 교환할 수 있는 기프티콘이 주어진다. 편의점 등에 가서 스마트폰의 기프티콘을 보여주면 오리온 초코파이를 받을 수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날 등 각종 행사가 잦아지는 5월, 가까운 이들에게 초코파이와 함께 마음을 전하자는 의미에서 마련했다"며 "특히 올 4월 초코파이 출시 41주년을 맞아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럽풍 별장에서 즐기는 힐링여행

강원도 인제 '맑은물리조트'
낚시 트레킹 등 자연체험
제철 먹거리 기행도 일품

맑은물리조트는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1만평의 넓은 부지에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자리잡고 있다. 경춘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서울강남에서 강원도 인제까지 150㎞ 별과 1시간30분~2시간 내외면 충분히 도착 가능하다.

41개의 모든 객실은 친자연조정 설계로 만들어졌으며 특히 통유리로 된 커다란 창문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산과 내린천의 절경, 티없이 맑은 공기와 청명한 물소리는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힐링이 될 것이다.

◆도심에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자연체험

이른 아침 리조트 앞 내린천에는 흐르는 강을 따라 물안개가 몽환가와 함께 피어오른다. 물안개 속을 거니노라면 아스라한 실루엣의 산자락을 배경으로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착각에 자연과 자신이 하나가 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낮에는 봄 산란철을 맞이하여 리조트 앞 물가 쪽으로 올라오는 민물고기 낚시를 강력히 추천한다. 아이들이 책에서만 볼 수 있었던 1급수 토종 물고기 쏘가리, 눈지, 쉬리, 꺽지 등 다양한 민물고기들을 직접 잡을 수 있다.

◆강원도산 제철 웰빙 안심먹거리와 맛집기행

리조트 안의 레스토랑에는 계절과 지역성을 고려해 정갈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맛깔나는 한 상이 차려진다. 특히 5~6월에는 [illegible] 귓가를 스치는 봄바람과 흙내음을 머금고 자란 봄나물(곰취, 두릅, 취나물, 엄나무순)이 리조트 곳곳에 피어 올라와 그 자리에서 채취, 흐르는 물에 씻어 먹는 별미가 또한 일품이다.

또한 맑은물리조트의 자랑거리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야외 바베큐시설이다. 도심보다 훨씬 좋은 가격으로 맛과 질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강원도 한우와 신지 청정 채소, 무료로 제공되는 와인의 환상적인 조화는 맑은물리조트만의 매력이다.

/최치선기자 chsunti@metroseoul.co.kr

등대글로벌스쿨, 가을학기 18명 모집

내달 16일 입학설명회

일산 등대글로벌스쿨(구 등대국제학교)은 오는 5월16일 오후 2시 학교 강당에서 2015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위한 입학설명회를 연다.

등대글로벌스쿨은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양성하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반복적인 예절교육으로 바른 인성을 기르고 매 학기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협동심과 공동체의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

해외교과과정으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반별 소수정원제다. 영어 사용인 국제반과 한국어 사용인 국내반을 운영한다. 토론 및 발표 수업과 국제반에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국어와 한국사 수업이 있다. 또한 올바른 부모교육을 위한 좋은부모학교, 교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독교사 훈련'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초등학교 때 입학해 미국 UCLA 등에서 상당한 장학금 보장과 입학 허가를 받은 현재신 군은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진로를 결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독서를 중시하여 다독과 정독으로 수준 높은 인문고전 읽기가 있다. 또 해외 문화교류 프로그램, 리더십 세미나 등을 통해 예술적 감성과 창의적 재능계발을 지도한다.

2015년 가을학기는 8월말 시작되고 각 18명 정원 내 모집이다. 입학설명회는 선착순 참가 예약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www.lrskorea.org)나 전화(031-971-2731~2)로 안내 받을 수 있다.

/최치선기자 chsunti@

강강술래 "보양식 3종 세트 반값"

쇼핑몰 전화주문 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가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원기회복 및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보양식 할인행사를 벌인다.

이달 말까지 한우사골곰탕(500㎖·3팩 6인분)과 육개장(500㎖·3팩 6인분), 갈비탕(500㎖·3팩 6인분)으로 구성된 삼동이세트를 50% 할인된 3만원에 판매한다. 모두 상온 보관이 가능하며 직접 냄비에 붓고 끓이거나 봉지 째 데워 바로 먹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영양간식으로 구성된 럭키박세트도 40% 할인 판매한다. 럭키A세트(모짜렐라돈가스1.44kg+칠칠한우떡갈비360g+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는 4만5600원, 럭키B세트(통등심돈가스1.44kg+칠칠한우떡갈비360g+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는 4만2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매장 인기메뉴인 한우불고기(1kg)와 한돈양념구이(750g)로 구성된 봄맞이 캠핑세트는 44% 할인된 4만3000원, 갈비맛 최고 기육포박스(10봉)는 40% 할인된 3만6000원에 판매한다.

한편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문화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명보아트홀 지하1층 다온홀에서 공연되는 드로잉 쇼 노키오 공연티켓(1인2매)도 증정한다.

/김태균기자

역류성 식도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대목동병원 28일 건강강좌

이대목동병원 위·대장센터(센터장 김판조)는 오는 28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의학관 A동 강의실 212호에서 '환우와 의사가 함께 하는 위식도 역류질환(GERD)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건강강좌는 성기남(사진) 교수의 '역류성 식도염 탈출하기'와 정혜경 교수의 '위식도 역류질환이라는데 왜 미리 안 나올까요?'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건강강좌에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 이대목동병원 위·대장센터(02-2650-5867)로 문의하면 된다.

/최치선기자 chsunti@

르네상스 서울 호텔, 어버이날 디너쇼

가수 현철 공연 12만원에

르네상스 서울 호텔에선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특별 가수와 함께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번 이벤트는 어버이날 당일 저녁 6시30분 르네상스 서울 호텔 3층 다이아몬드 볼룸에서 가수 현철(사진)을 비롯해 MC정용국, 모레아티스트 이예주 등이 출연해 다양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공연관람과 함께 무료 음료 1잔, 특선 메뉴를 포함한 가격은 12만원(10% 봉사료·10% 세금 포함)이다.

르네상스 서울 호텔 객실 숙박권, 식음료 레스토랑 이용권, 더 베이커리 와인 1병, 더 베이커리 케이크 교환권 등 푸짐한 경품 추첨도 마련됐다.

르네상스 서울 호텔 관계자는 "평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어려웠던 부모님께 소중하고 뜻 깊은 시간을 선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

삼진제약 'SA-100' 식약처 임상 승인

<먹는 안구건조증 치료제>

삼진제약(대표 이성우)은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먹는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개발 중인 SA-001(사진)에 대해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SA001은 눈의 결막에서 점액물질을 분비하는 술잔세포(goblet cell)를 증식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전임상 시험을 통해 확인했다.

안구건조증 환자의 점액물질 분비가 늘어나면 손상된 안구지표는 물론 항염증작용, 눈물량 증가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

또 기존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인공눈물과 점안액과의 비교 연구에서도 높은 효과를 나타내 먹는 약을 통해 안구건조증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제약, 내달 16일 '조르단 패밀리데이'

동아제약은 조르단 코리아와 함께 내달 16일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 서울(잠실)에서 조르단 패밀리데이 이벤트를 실시한다.

조르단 패밀리데이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참가 신청자 중 500명을 추첨하여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된 행사이다. 당첨자는 3인까지 동반할 수 있어 최대 2000여 명이 행사에 초청될 예정이다.

이번 조르단 패밀리데이 행사에 초청된 가족들은 행사 당일 오후 3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를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다. 마술쇼와 연극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거품 빼라" 분양시장, 다이어트 열풍

면적↓분양가↓에너지↓… 실속 아파트 인기

분양시장에 '다이어트'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건설사들이 실수요자들을 잡기 위해 '거품'은 빼고 '실속'으로 채운 아파트를 선보이면서 면적, 분양가, 에너지 등의 거품을 빼고 있는 것이다.

20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대우건설이 동탄2신도시에 공급한 '푸르지오2차'는 평균 58.5대 1로 당해 1순위 마감을 기록했다. 역대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가장 많은 3만3194건의 청약통장이 몰렸다.

비슷한 시기 롯데건설이 서울 독산동에 선보인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도 1순위에서 평균 4.15대 1을 기록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충남 서산에 공급한 '힐스테이트 서산' 역시 순위 전 타입이 마감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업계는 신규분양 물량이 넘쳐나는데도 우수한 성적을 내는 단지들은 '실속'이라는 특징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동탄2신도시의 '푸르지오2차'의 경우 분양가가 동탄1신도시 전세가와 비슷한 1100만원 초반대에 그쳤다. 여기에 전 세대 74㎡와 84㎡의 중소형만으로 구성됐고,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일괄제어 시스템, 대기전력 차단장치, LED 조명 등이 설치됐다.

롯데건설 '롯데캐슬 골드파크3차'도 마찬가지. 전용면적 59~84㎡의 중소형으로 설계됐고, 지열 냉난방 시스템, 우수 재활용 시스템,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해 관리비 절약을 유도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금호건설과 롯데건설은 충남 아산에 선보인 '아산모종 캐슬어울림2차'에 인근 시세보다 70만~80만원 저렴한 평균 3.3㎡당 690만원대의 분양가를 책정했다. 또 태양광발전 시스템, 각방 온도조절시스템, 대기전력 자단시스템 등을 적용한 에너지 절감 단지로 꾸몄다.

대림산업이 인천 남동구에 공급한 'e편한세상 서창'도 인근 분양단지보다 60만~200만원 저렴한 평균 3.3㎡당 830만원대에 공급했다. 아울러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 구성하면서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EMS)을 비롯해 대기전력 자단시스템, 지하주차장 LED 디밍제어 등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적용키로 했다.

김대우 하나은행 부동산팀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저렴한 분양가의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수요자들의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분양가뿐만 아니라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설계,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등을 고려한 실속형 아파트 등이 분양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821@metroseoul.co.kr

국유재산 건축상 대상에 한라 '주UAE한국대사관'

한라는 자사가 시공한 '주UAE한국대사관'이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한 2015년 국유재산 건축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축상은 지난해 완공된 107건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전문가 6인이 예산집행 효율성, 내구성, 공공성·편의성을 평가해 선정했다.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주UAE한국대사관은 100억원 이상 건축물 중 대상으로 뽑혔다.

주UAE한국대사관은 전통 요소를 가미한 담장과 지붕디자인으로 한국적인 이미지를 부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업무와 관사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분리하고, 에너지절감 효과를 고려해 건물을 지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한라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 외교단지 2만1182㎡ 부지에 정사동·관저동 영사동으로 구성된 주UAE한국대사관을 건설했다. 지난 2월 최갑수 한라 사장이 권해룡 주UAE한국대사로부터 성실시공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한라 관계자는 "한라의 앞선 기술력과 우수한 시공능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아프리카·베트남·인도네시아 등에서도 한국건설의 위상을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SK건설, '신동탄 SK뷰파크 2차' 이달 분양

SK건설은 경기 화성시 기산동 일원에 '신동탄 SK뷰파크 2차'를 이달 중 분양한다고 밝혔다.

지하 2층, 지상 24층 14개동, 전용면적 ▲59㎡ 468가구 ▲84㎡ 728가구로 전체 1196가구 규모다.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동탄~수원 간 도로 등과 인접하다. 인근에 수서와 동탄을 잇는 KTX 동탄역이 2016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일산과 동탄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또한 추진 중이다. 700여m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가 위치한 직주근접형 입지를 갖추고 있다.

단지 지상은 차가 다니지 않는 안전 단지로 조성되며 풍부한 녹지공간과 다양한 테마조경이 꾸며진다.

약 1500㎡ 규모로 지어지는 커뮤니티센터에는 피트니스센터와 도서관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에 마련된다. /윤정원기자

한화건설, 사업설명회에 1000여 명 몰려 한화건설이 다음달 경기도 일산 킨텍스 꿈에그린 분양을 앞두고 개최한 사업설명회에 1000여 명의 수요자가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한화건설 제공

롯데건설, 계절따라 바뀌는 '칠색 조경'

롯데건설은 이달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A27 1블록에 공급하는 '롯데캐슬 파크타운'에 일곱 가지 계절과 색을 담은 특화조경을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롯데캐슬 파크타운'을 단지명과 같은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할 계획이다. 탁 트인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건폐율 17.7%에 조경률 40%를 적용했다. 일곱 가지의 계절과 색을 담는 조경전략을 세웠다.

우선 사계절을 초봄·늦 초여름·여름·기을·늦가을·겨울로 세분화한 뒤 빨강·주황·노랑·초록·파랑·분홍·하양 등의 색감을 느낄 수 있도록 꾸몄다. 이를 통해 단지에서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조경을 선보일 계획이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형상화한 단지 내 테마조경 공간도 선보인다. 봄길, 여름광장, 가을산책로, 겨울쉬터를 콘셉트로 입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나무별로 QR코드가 적용된 수목표찰을 달아 교육적인 면도 배려했다.

롯데건설 분양관계자는 "운정호수공원과 가깝고 주변의 자연환경도 뛰어난 단지의 특징을 배가시키고 쾌적한 신도시에 산다는 느낌을 강조키 위해 보다 치밀한 조경전략을 세웠다"며 "입주민들께 차별화된 주거 만족도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운정신도시 롯데캐슬 파크타운은 지하 2층, 지상 23~29층, 10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076가구로 구성돼 있다.

현재 파주시 금촌동 57번지 현대프라자 3층과 일산(주엽동 66-1번지 노블레스빌딩 3층)에서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이달 중 경의선 야당역 인근에서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정체되지 않은 신선한 배우 되고 싶어요"

가수에서 배우로 홀로 선 임슬옹

그룹 2AM 출신 임슬옹(28)은 "신입이 아닌 경력 사원"이라고 연기자로 홀로 선 소감을 전했다.

"처음 가수로 데뷔했을 땐 아무 것도 몰랐죠. 지금은 연예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배우로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느낌이 달라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앨범은 계속 낼 생각이에요. 가수에서 배우로 완전히 전업했다기 보단 제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줄 뿐이죠. 2AM이었을 때도 가수이기 때문에 역할에 제한을 받은 적은 없어요. 다만 대중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저만의 모습이 많았을 뿐이죠. 배우로선 신선한, 정체되지 않도록

'개취' '호구' 등서 연기
신입 아닌 경력 사원 같아

완전한 전업이 아닌
할수 있는 걸 보여 줄 뿐

노력하려 합니다."

최근 종영된 tvN 드라마 '호구의 사랑'에서 철두철미하고 인간미가 부족한 변강철 역을 맡았다. 2010년 MBC 드라마 '개인의 취향'을 통해 연기를 시작한 그는 실력이 일취월장했다.

"'개인의 취향'은 손예진과 이민호가 주연이라고 해서 했어요. (웃음) 이후 단막극을 하면서 연기의 매력을 알게 됐고 영화 '26년'을 통해 진지하게 임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연기 수업을 따로 받고 있어요. 출연하는 작품으로 공부하기도 하고 어떤 한 작품을 정해 놓고 카메라에 녹화하기도 하죠. 멋있는 대사가 있으면 혼자 녹음해서 선생님에게 보내기도 해요."

캐릭터 설정은 임슬옹 내면에서 비롯된다.

"캐릭터 연구는 저와 캐릭터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서 시작해요. 변강철은 코믹과 진지함을 넘나드는 인물이죠. '가구를 바꿔야 겠군' 처럼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 딱딱한 말투를 써요.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적절한 감성선을 찾으려고 했어요. 결벽증도 있죠. 저도 더럽게 살지는 않아요. 혼자 산 지 3~4년 됐는데 정리 정돈을 하는 편이에요. 변강철과 또 비슷한 건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때론 외롭지만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연기는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요. 특히 '호구의 사랑' 데션 확신이 적었던 장면이 많이 였었죠."

'개인의 취향'과 '호구의 사랑'에서 게이와 연관된 역할을 맡았다. 그는 "변강철과 달리 여자를 좋아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 정말 여자 좋아합니다. (웃음) 최근에는 애인이 없었어요. 진심이에요. 어릴 때는 예쁜 여자가 좋았어요. 예쁜 여자도 만나 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니 얼굴보단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몸이 뒤로 물러나죠."

"귀는 얇은데 욕심이 있다"고 애매하게 자신을 평가한 그는 "일정적으로 한하는 아버지를 본받고 싶다"고 말했다.

"세 살 차 누나가 한 명 있어요. 어머니는 주부고 아버지는 건축업을 하죠.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현장에서 감독을 하세요. 제가 겉모습은 부드러워도 내면은 남성적이거든요? 특히 일적인 면에선 욕심이 있죠. 원래 그런 성향이었는데 연예인이 된 이후 더 다져졌어요. 아버지를 보면서 저 역시 나이 들어서도 일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겠다고 느껴요. 입대 문제도 있죠. 불안하기도 하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 그런 걸 생각하느라 힘빼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입대하면 연예계 활동 이외의 다른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전효진기자 zonhj89@metroseoul.co.kr

/사진=마운드미디어(김민주)

star bag

술집 여자 파격 변신

배우 전도연이 스크린 컴백작 '무뢰한'에서 술집 여자로 파격 변신한다. 형사와 살인자의 여자라는 양극단에 선 남녀가 만나 엇갈리는 진심과 거짓을 그린 하드보일드 멜로 영화다. 전도연은 살인 용의자 애인을 기다리는 술집 여자 김혜경을 연기한다. 형사 정재곤(김남길)과 호흡을 맞춘다. 다음달 개봉.

12집 발표 본격적인 활동

가수 이승철이 다음달 말 정규 12집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다음 달 초부터 선공개곡을 소개하며 컴백에 시동을 걸 계획이다. 소속사는 "2년 만에 발표하는 정규 앨범을 위해 올해 초부터 대외 활동을 대부분 접은 채 음반 작업에만 매진해왔다"고 전했다. 올 연말부터 데뷔 30주년 기념 콘서트도 개최할 계획이다.

동물영화제 홍보대사

최근 열애 사실을 인정해 화제가 된 배우 전소민 윤현민이 제3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홍보대사 '애니멀 프렌즈'로 발탁됐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남다른 동물 사랑을 실천해 홍보대사에 선정됐다고 영화제 측이 밝혔다. 다음달 22일부터 28일까지 7일 동안 순천시 일대에서 열린다.

FNC엔터와 전속 계약

개그우먼 이국주가 최근 FNC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FNC엔터테인먼트는 "이국주는 색깔 있는 캐릭터로 대중들에게 큰 웃음을 전달하는 만능 엔터테이너다. 향후 이국주의 활동에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국주는 지난해 의리 캐릭터와 식탐녀 캐릭터로 큰 인기를 모았다.

댄스 가수 롱런 비결은 '건강관리'

가수 박진영(43)은 스스로를 '딴따라'라고 부른다.

그는 JYP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자 '딴따라'로서 쉼없이 활동 중이다. 그는 1993년 데뷔 이래 가수이자 프로듀서로서 잠시라도 일을 멈춘 적이 없다.

SBS 'K팝스타'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최근 새 앨범 '24/34'을 발표, 타이틀곡 '어머님이 누구니'로 소속사 걸그룹 미쓰에이(Miss A)를 제치고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싹쓸이했다.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박진영은 예상 밖의 소감을 전했다.

"20대였다면 좋았겠지만 지금은 잘 되도 그렇게 좋지 않고, 안 돼도 그렇게 속상하지 않아요. 그게 20대와 많이 달라진 점이죠. 운이라는 게 상당부분 작용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옛날엔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못 되면 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젠 하루를 얼마나 부지런하게, 올바르게 사는지만 컨트롤해요. 과정이 잘못 돼도 결과는 잘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것만 생각하면 불안해서 일 못하죠. 회사 소속 가수들과 직원들에게도 항상 과정을 우선시 하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는 분명 기쁜 일이다. 특히 40대도 댄스 가수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

박진영 '어머님이 누구니'로 음원 싹쓸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 팬에 보답하는 길"

"물론 20대 때도 팬에게 고마웠지만 지금만큼은 아니었어요. 제 팬들이 이제 다 사회인이 됐는데 요즘 참 살기 힘들잖아요. 자기 연생 하나 사는 것도 힘든데 절 응원해 주고 있어요. 몸 둘 바를 모르겠어요. 팬에게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다 나도 힘들게 살아야 겠다고 생각했죠. 박진영도 24시간을 쪼개서 힘들게 산다는 걸 알고 질 동레 위안을 얻었으면 해요."

그는 만 60세까지 가수로 활동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참으면서 힘든 삶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60세가 됐을 때 20대보다 춤을 더 잘 추고 노래를 잘하면 팬에게 위안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결심했을 때부터 철저하게 관리중이에요. 노화는 어떻게 일어나고 근육과 관절이 어떻게 바뀌는지 거의 의대생 수준으로 공부한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한 것들을 3년 전부터 제 몸에 적용시키면서 확실히 몸이 좋아졌어요. 피부과도 한 번도 안가고, 감기도 한 번 안 걸렸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괴로워요. 제 몸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통제해요. 후추같은 향신료까지 유기농으로 먹어야만 해요. 피자도 먹고 싶고 술집도 가고 싶지만 제 인생과 바꿨다고 생각해요.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연기를 얻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는 인터뷰 내내 가수에게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역설했다.

"20대 때 라이브랑 최근 라이브를 비교해 보면 바로 아실 거예요. 지금이 확실히 숨이 덜 차요. 사실 굉장히 힘들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하는데, 이 정도의 희생은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만 60세가 되는 해만 보고 견디고 있어요(웃음). 반칙 안 하고 사는 어른도 있다는 걸 팬에게 보여주고 싶거든요."

/김지민기자 anglum@metroseoul.co.kr

"강하고 자유분방한 여자"

고준희, '나의 절친 악당들' 연기 변신

배우 고준희가 영화 '나의 절친 악당들'(감독 임상수)로 연기 변신을 선보인다.

'나의 절친 악당들'은 의문의 돈가방을 손에 넣은 지누(류승범)과 나미(고준희)가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진짜 악당이 되기로 결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고준희는 극중에서 세상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는 거침없는 성격으로 렉카차를 운전하는 인물 나미 역을 맡았다.

평소 임상수 감독의 팬이라고 밝혔던 고준희는 "시나리오를 읽자마자 굉장히 하고 싶었다. 지금껏 연기해본 적 없는 캐릭터이자 한국영화에서 보기 드문 강하고 자유분방한 여자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고 출연 결심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영화에서 고준희는 거칠고 섹시한 매력을 보여주는가 하면 대역 없는 맨몸 액션 연기까지 불사하는 투혼을 발휘했다.

임상수 감독은 "항상 자신의 최대치를 보여주려는 의욕과 열정이 가득한 배우를 원했다. 고준희가 바로 그런 '배우'라며 "촬영하면서 놀라울 정도로 호흡이 잘 맞았다. 성장하는 모습이 느껴져 매일 매일이 행복했다"고 칭찬했다.

한편 '나의 절친 악당들'은 오는 6월 개봉 예정이다. /황성운기자

반드시 알아야 할 안중근 이야기

musical review

/전효진기자

■ 영웅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많았다. 뮤지컬 '영웅'은 내용 전개, 음악, 세트 연출 어느 하나 빠지는 것 없었다. 창작 뮤지컬로 국내외 극찬을 받은 만큼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영웅'은 1909년 안중근 의사가 러시아로 망명해 대한독립군 동지들과 맺은 단지 동맹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명성황후 시해, 이토 히로부미 저격, 여순 감옥 순국까지의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구성됐다. 웅장한 음악은 안중근 의사의 결연한 의지를 표현한다. 강인한 남성적 분위기가 감도는 와중에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명성황후 마지막 궁녀이자 가상 인물 설희는 아들 잃은 슬픔과 나라 잃은 고통을 섬세하게 노래한다. 일본 순사들과 독립군의 추격전은 왕삼불의 아크로바틱으로 대신한다. 박력 있는 움직임이 관객을 흥분시킨다.

국내외 극찬 증명하는 무대
편향되지 않은 역사 해석

'영웅'은 세트 설치에 3억~4억 원을 들였다. 하얼빈 역, 설희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에서 하얼빈으로 이동하는 기차 객실, 안중근 의사의 주 거처인 숲 속 세트장이 완성도를 높인다. LED 화면 활용도 영리하다. 사형 당한 안중근의 시신이 일본에 의해 유기돼 현재까지 찾을 수 없다는 역사를 화면에 글로 풀어낸다. 배우들의 고음, 음악으로 감동을 주는 게 일반적인 뮤지컬에 비해 공가는 여운을 남긴다.

'영웅'의 작품성은 편향되지 않은 역사 해석에서 비롯된다. 넘버 '누가 죄인인가'는 안중근 의사 의거를 둘러싼 한국인과 일본인의 관점 차를 그대로 나타낸다. 한국인에게 이토 히로부미는 명성황후를 살해하고 이 시아 평화를 위협한 자다. 그러나 일본인에게 안중근은 자국 정치인을 죽인 살인자다. 현재 한일 양국은 역사 분쟁 중이다. 보다 폭넓은 관점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가 절실하다.

가슴 먹먹한 역사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 뮤지컬 '영웅'은 5월 31일까지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 공연.

2015.5.2 (토) 2PM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지휘 서희태 연주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주최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Millennium Symphony Orchestra 티켓 R 4만원 S 3만원 A 2만원

예매 SAC Ticket 02-580-1300 인터파크 1544-1555 공연문의 02-6292-9370

“흔하고 인기 많은 음식 위주로 촬영”

'식사를 합시다2' 박준화 PD, 먹방드라마 노하우 공개

tvN '식사를 합시다2'의 박준화 PD가 먹방드라마의 비하인드를 공개했다.

20일 신사동 엠아카데미에서 진행된 공동 인터뷰에 주연배우 윤두준·서현진·권율과 함께 참석한 박 PD는 "시청자들이 흔하게 맛을 봤던 음식을 위주로 진행한다"며 "시청자가 영상 속 음식을 보면서 그 음식을 먹었던 기억을 되살려 저절로 군침이 돌 수 있도록 촬영한다"고 밝혔다.

박 PD가 먹방씬 촬영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배우의 입과 음식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다. 그는 "먹방을 1년 이상 찍다 보니 생긴 노하우"라며 "연결성이 떨어지면 맛있게 먹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우 역의 권율은 "왜냐 백숙같이 다른 음식에 비해 단색인 음식이거나 카메라로 잡았을 때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는 음식을 찍을 때는 음식에 포커싱이 가기보단 먹는 모습에 더 포커싱이 된다. 그때는 주변에 다른 것들을 이용해 본래 음식을 더 맛있게 먹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전했다.

시즌 2가 시즌 1과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스토리다. 박 PD는 "먹방은 지엽화 포인트지 주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시즌 2는 먹방 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와 음식을 통해 따뜻함을 전하는데 포인트가 있다"고 강조했다.

'식사를 합시다2' 공동 인터뷰에 참석한 권율, 서현진, 윤두준 /CJ E&M 제공

또 시즌 1이 매주 목요일 주 1회 방송했다면, 시즌 2는 매주 월화에 미니시리즈 형태로 주 2회 방송한다. 박 PD는 촬영 스케줄에 쫓기진 않는지에 대해 "촬영 전에 대본을 11회 만들어 놓고 시작했고, 첫 회 방송 전에 8회 정도 미리 촬영을 마쳤었다"면서 "촬영과 편집을 일찍 마치고 후반 작업에 신경을 쓰는 편인데 철저한 준비를 통해 후반부에도 초기와 같은 디테일한 완성도를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지난 6일 첫 방송을 시작한 '식사를 합시다2'는 동시간대 시청률 1위(2.7%)를 기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이용라기자 yun@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어게인 1995' 연고전이 돌아온다

◆ KBS2 '우리동네 예체능' 오후 11시10분

2주년 특집 '농구 레전드'들의 최고의 라이벌 대결 '어게인 1995 연고전' 리턴즈가 방송된다. 최희암 감독을 필두로 한 연대팀 농구선수 우지원·김훈·김택훈과 예체능 멤버 강호동·박진영·서지석·줄리엔 강, 이충희 감독을 앞세운 고대팀 농구선수 이민형·현주엽·신기성과 멤버 정형돈·샘오취리·김혁·정진운이 과거의 라이벌전을 재현하는 승부를 펼친다. /영화=이슬기기자

◆ KBS1 '창의 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오후 11시40분

서강대 철학과 최진석 교수가 전명원 40주 강의 세 번째 장 '철학의 탄생'을 연다. 그는 "고도의 지적 훈련에서 철학은 탄생한다"고 말하며 진요한 관철과 낯설게 보기를 통해 잠든 용기를 가질 때 철학이 탄생한다고 역설한다.

◆ SBS '황홀한 이웃' 오전 9시30분

공수래(윤손하)는 서유나(김수정)에게 한국에 남아 옷을 만들고 싶다며 뉴질랜드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서봉국(윤희석)은 그녀를 임연옥(이덕희)의 방에 가둬 어떻게 해서든 뉴질랜드에 보내려 한다.

◆ JTBC '백인백곡 - 끝까지 간다' 오후 9시40분

S대 국악과 출신 신스틸러 장석정, 가창력만큼은 자타공인 넘버원인 케이윌, 4년 만에 솔로로 돌아온 싸이의 보컬 김연지, 사심 가득한 개그 콤비 이동윤·안소미, 우승에 대한 투지를 불태우는 블락비의 손승연이 출연한다.

※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1일 (화)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20 2TV 저녁 생생정보	0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illegible] 10 출동! 슈퍼윙스 25 내 친구 [illegible] 45 [illegible]	00 [illegible] 25 Real Fun World [illegible] 50 Real Fun World 55 [illegible]
19시	00 KBS 뉴스 7 30 [illegible]	35 오늘부터 사랑해 (12회)	15 황금의 저택 (73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달려라 장미 (13회)	00 [illegible] 20 EBS 뉴스 [illegible]	[illegible] Real Fun World [illegible]
20시	25 당신만이 내 사랑 (107회)	30 [illegible] 55 1대 100	55 압구정 백야 (13?회)	00 SBS 8 뉴스 55 SBS 뉴스토리	40 다큐 오늘 55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illegible]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드라마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illegible] 55 [illegible]	00 블러드 (21회)	00 화정 (4회)	00 풍문으로 들었소 (19회)	45 [illegible]	00 [illegible] 배우는 영어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창의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10 우리동네 예체능	15 PD수첩	15 [illegible]	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0시 [illegible]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illegible]	15 MBC 뉴스 24 20 MBC 100분 토론	35 나이트라인 45 SBS 스페셜	35 [illegible] 50 EBS [illegible] 특강	20 K-POP으로 배우는 [illegible]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00 비정상회담 (42회)	40 [illegible] (6회)	00 [illegible] [illegible] (14-15회)			◆ 프로야구 한화 vs LG (SKY TV, SPO TV2) 두산 vs 넥센 (MBC SPORTS+) 롯데 vs KIA (SPO TV+, SPO TV1) 삼성 vs NC (KBS N SPORTS) SK vs KT (SBS SPORTS, [illegible]) ◆ ACL 19:30 우라와 레즈 vs 수원 (MBC [illegible]) 서울 vs 광저우 에버그란데 (MBC [illegible])
19시	55 JTBC 뉴스룸		00 [illegible] (1회)	00 <극한직업> [illegible]	30 판타스틱 4	
20시	50 JTBC 뉴스룸	10 [illegible] (2회)	00 오늘 뭐 먹지? (32회) 50 오늘 뭐 먹지? (33회)	00 아시아 [illegible] 2부 [illegible]		
21시	40 백인백곡 끝까지 간다 (25회)	20 [illegible]	00 [illegible]	00 코스모스 (5회)		
22시			00 오늘 뭐 먹지? (26회) 30 오늘 뭐 먹지? (53회)	00 [illegible] (9회) 30 [illegible] (10회)	00 가시	
23시	0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8회)	00 식사를 합시다 2 (8회)	00 올리브쇼 2015 (10회)	00 <[illegible]> [illegible]		
24시	20 [illegible]	20 [illegible] (27회)	00 [illegible] 20 [illegible] (30-31회)	00 <극한직업> [illegible]	20 히어로	

4연패 KIA '한승혁·서재응' 카드 꺼내나

4·5선발 교체 저울질… 중심타선 회복도 관건

KIA 한승혁과 서재응

개막전부터 6연승을 달리며 돌풍을 일으켰던 KIA 타이거즈가 4연패에 빠졌다. 시즌 8승 9패로 5할 승률마저 붕괴됐다.

지난 1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15 타이어뱅크 KBO리그' 넥센 히어로즈와의 시즌 3차전은 최근 KIA가 처한 위기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선발로 나선 문경찬이 2이닝 동안 5실점을 하며 조기 강판됐고, 이어 등판한 박준표도 1⅓이닝 7실점으로 무너져 4-15로 완패했다.

KIA는 시즌 초반 양현종-필립 험버-조쉬 스틴슨으로 이어지는 3선발 체제를 가동하고 공백이 생길 때 마다 임기준-문경찬 등에 4·5선발을 맡겼다. 초반만 해도 3타자가 맞아 떨어져 연승을 이어갔다. 우천으로 순연되는 경기가 많았고 임기준-문경찬 둘이 깜짝 호투를 펼치고 막내 KT 위즈를 상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5연전에서 KIA는 4연패로 무너졌다. 결국 김기태 KIA 감독은 17일 넥센전에 앞서 임기준을 1군 엔트리에서 제외하고 대신 한승혁을 1군으로 올렸다.

한승혁은 18일 넥센전에 구원 등판해 155km에 달하는 빠른 공을 선보이며 2⅔이닝 1실점(비자책)으로 호투해 선발 진입 가능성을 보였다.

베테랑 서재응은 최근 퓨처스리그 3경기에 등판해 평균자책점 0.53(17이닝 1자책점)을 기록하며 3승을 수확했다. 신인으로 아직 경험이 부족한 문경찬을 대신해 선발 한 자리를 맡길 수 있는 상황이다.

침묵하고 있는 중심 타선은 컨디션이 회복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KIA는 팀타율 0.259(9위), 득점권 타율 0.247(7위) 등으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하위 타선이 살아나 근근히 버티고 있지만, 나지완-최희섭-이범호의 부진이 심각하다.

지난 5연전에서 이범호는 타율 0.188, 최희섭은 0.158, 나지완은 0.105에 머물렀다. 최희섭이 19일 넥센전에서 홈런 1개를 날리며 4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회복 조짐을 보여 다행이다. 손목 통증으로 19일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된 김주찬은 21일 롯데전부터 출전할 전망이다.

/김민준기자 mr.kim@metroseoul.co.kr

추신수 10일만에 타점 추가요

강정호 첫 득점-볼넷

'추추트레인'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10일 만에 타점을 올렸다.

추신수는 20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세이프코 필드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원정경기에서 5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2타점을 기록했다. 지난 10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 3타점 이후 타점을 추가했다. 시즌 타율은 0.138에서 0.152(33타수 5안타)로 올랐다.

2회초 선두타자로 나와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난 추신수는 3회초 무사 만루에서 1루수 땅볼로 타점을 만들었다. 4회초 세 번째 타석에서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했다. 이어 6회초 시애틀 두 번째 투수 다닐러 올슨의 초구를 받아쳐 1타점 중전 적시타를 날렸다.

8회초 마지막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다. 이날 텍사스는 양팀 합계 29안타가 오가는 난타전 속에 10-11로 석패했다.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는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홈경기에서 6회말 대주자로 나서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첫 득점에 첫 볼넷까지 얻었다.

6회말 무사 1루에서 주전 유격수 조디 머서가 몸에 맞는 볼로 부상을 당하자 대주자로 나섰다. 강정호는 상대 투수의 폭투를 틈타 2루에 진루한 데 이어 크리스 스튜어트의 좌전 적시타 때 홈까지 밟으며 메이저리그 데뷔 첫 득점을 올렸다. 8회말 타석에서는 볼넷을 얻었다. 피츠버그는 5-2로 승리해 밀워키와의 3연전을 모두 쓸어 담았다.

/김민준기자

'슈틸리케호' 6월11일 UAE와 평가전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을 앞둔 '슈틸리케호'의 최종 점검 상대가 아랍에미리트(UAE)로 결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차 예선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A매치 일자인 6월11일 국내에서 UAE와 평가전을 치르기로 합의하고 20일 현재 세부 사항을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UAE전은 월드컵 예선에서 같은 G조에 속하게 된 쿠웨이트, 레바논 등을 염두에 둔 마지막 모의고사다. 같은 중동 축구를 구사하면서 국제축구연맹(FIFA) 순위에서는 쿠웨이트(127위), 레바논(144위)을 크게 앞서는 UAE(68위)는 한국의 스파링 파트너로 제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은 상대 전적에서 UAE에 11승 5무 2패로 크게 앞선다. 최근에는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최종예선과 2014 브라질 월드컵 3차 예선에서 두 차례씩 만나 한국이 4연승을 거뒀다.

/김민준기자

오승환 ♥ 유리, 열애 인정

야구선수 오승환이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유리와의 열애를 인정했다.

20일 오승환의 매니지먼트 스포츠인텔리전스는 "오승환과 유리는 서로 호감을 갖고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며 "오승환은 지난 시즌을 마치고 귀국해 개인 휴식기간인 2014년 11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유리를 만났다"고 밝혔다.

이어 "오승환은 2014년 일본 프로야구 시즌 종료 후 괌에서 개인 훈련을 하고 바로 현 소속 구단인 한신타이거즈 스프링캠프에 참가했다. 소녀시대 유리도 바쁜 개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 자주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서로 호감을 갖고 알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포츠인텔리전스는 "오승환은 2015년 일본 프로야구에서 활약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투구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지나친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오승환과 유리의 열애설은 이날 오전 한 주간지의 보도로 알려졌다. 소녀시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도 두 사람이 열애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

류현진 5월 말 복귀 불투명

"어깨통증 느끼지 않는다"

왼쪽 어깨 통증으로 부상자 명단(DL)에 오른 류현진(28·LA 다저스)이 19일(현지시간) "캐치볼 연습을 할 때 어깨에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류현진은 이날 다저스를 취재하는 트루블루LA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컨디션으로 볼 때 불펜 투구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하지만 언제 복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필드 밖에서 캐치볼 연습을 하고 있을 뿐이다. (코치진들이) 시키는 대로 연습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루블루LA닷컴은 류현진이 사흘째 캐치볼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캐치볼 거리는 90피트(약 27.4m)를 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류현진의 다저스 로스터 합류 시기는 여전히 미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류현진의 '5월 말 복귀'가 희망사항일 뿐 구체적인 복귀시점은 아직 모른다는 이야기다.

/김민준기자

신세계 이마트, 경찰 등에 선물 관리

장하나 의원, 선물 리스트 문건 확보 … 확인 땐 '뇌물수수죄'

신세계 이마트가 관내 경찰 등에게 명절 떡값과 선물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며 관리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20일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신세계그룹 내부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문건에는 대구 모 경찰서 장아무개 형사와 서울 모 경찰서 김아무개 형사가 지난 2011년 추석 선물 명목으로 신세계 이마트 측으로부터 각각 현금 5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또 다른 문건에는 신세계 이마트 신도림점이 정보과 형사에게 10만원을, 구로점 역시 정보과 형사에게 20만원을 줬다고 기록돼 있다.

국가정보원 김아무개, 윤아무개 직원 등도 각각 10만~15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받은 것으로 표기돼 있다. 문건에는 3년 묵은 천일염 알배기2호, 비고 삼무님 이라는 문구와 함께 백승자 이름까지 적혀 있다.

문건에는 또 '여기는 작년 추석에 권역 선배님들 했던 내용인데요 금액 맞춰서 벤치로 뭘아서들 해주세요'라는 표기도 있다. 명절 선물이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오고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 신세계 이마트 직원끼리 주고 받은 캡처된 내부 이메일 화면에는 '작년 방문했던 곳을 다시 한번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고 기재돼 있다.

이는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신세계 이마트 측이 동일 인물에게 선물을 주라는 지시로 보인다.

문건에는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및 지방노동청, 중앙노동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1명조인 등 수십명에게도 추석 선물을 돌린것으로 적시돼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해당 선물 명단과 관련해 신세계 이마트와 경찰 간의 유착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 등의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리스트에 적힌 대로 경찰에게 선물이나 금익을 줬다면 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 일정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명절 선물을 보냈다면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경동시무처장은 "경찰들이 신세계 이마트 같은 기업의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때문에 신세계 이마트가 경찰에게 선물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금도 (기업)이 경찰에 선물을 주는 행위가 비밀리에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현영기자 hnt sk@metroseoul.co.kr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열린 '장애인 차별철폐 총투쟁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종로구청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부에 와 닿는 장애복지 시급

전체 250만 수급자 중 10%만 80만원 혜택

제3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피부에 와 닿는 장애복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250만 장애등급 대상자 중 수급장애인은 24%에 불과하고 그마저 1~2급에 해당되는 10%만이 80만원 정도를 받고 있어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20일 오후 보신각 앞에서 장애인 차별철폐 총투쟁 결의대회 등 미친 장애인들은 장애등급제로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 역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현재 장애등급제로 인해 장애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의 경우는 비만이나 우울증 환자 등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경우도 장애로 적용해 지원을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수급장애인 중 10% 혜택을 받는 대상자 역시 기초생활보장연금과 장애연금을 합한 금액이 80만원이다. 장애등급자 중 80%가까이는 개인적으로 수급 받는 게 거의 없어 생활이 어려운 현실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이태곤 소장은 "복지부 예산의 50%이상의 지원금이 수용시설과 장애인 보호자의 도우미 인건비에 들어가고 장애인 개인한테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이동권 또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시내버스도 저상버스가 몇 대 안되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역시 개인한테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면 혜택을 볼 수 없다. 우리도 영국이나 유럽처럼 시설이나 가족에게 지급하지 않고 장애인 개인한테 지급하는 개인이산제를 실행하는 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야 본인이 필요할 때 도우미나 간병인을 부를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도 실제 필요한 부분은 의료나 고용보장 보다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장은 "복지부의 정책이 예산부족으로 장애인의 개인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면 직업장을 늘리거나 인메시 같이 장애인에게 특정 직종을 늘려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장애인사업장에서 만든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좀 더 많은 양을 구매토록 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범위와 대상 품목도 확대해야 장애인들의 소득이 증가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자립기반과 양동교 과장은 "장애연금과 기초생활보장연금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시설지원보다는 4~5명 단위의 소규모 그룹이나 장애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최치선기자 chiun…

인천 국회상륙작전' 국회서 인천시 비전 선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0일 국회 의원회관 앞 후생관 앞에서 시 관계자들과 함께 인천 특산물 등을 관례 전시작을 순회 후 서해5도 주민과 함께 '희망인천 풍선날리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인양' 내일 중대본 발표 즉시 착수

10월부터 인양 시작

세월호 선체 인양이 22일 발표된다. 해양수산부가 인양 검토 절차 등 마무리해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선체 인양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국내외 업체 선정 등을 두고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실제 인양은 10월부터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20일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기술적 검토를 끝내고 이날 중대본에 인양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은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해수부의 종합기술검토 보고서 최종본은 4월 말 나올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관련 부처 및 고위 공무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중대본 회의를 통해 22일 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인양으로 가닥이 잡혀도 ▲업체 선정과 계약 ▲방법 ▲시기 등을 놓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실종자 가족들의 시신 유실 우려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국내 단독 인양이 어렵다는 점에서 거론된 외국 업체와의 계약도 그 절차만 최소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해수부는 인양 결정이 나는 대로 전담조직을 구성해 2개월 내 인양업체 선정, 3개월간의 인양설계 추진을 통해 이르면 10월 초 우선 작업이 가능한 해상작업기지 설치 등에 착수할 방침이다.

4월 말~5월 초로 예정됐던 인양 검토가 22일로 확정되자 일각에선 정부가 국면전환용 카드를 빼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성완종 리스트가 정권 핵심부를 강타한 데다 세월호 1주년 추모 행사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이 논란이 되자 이를 상쇄하기 위해 서둘러 인양 발표를 내놓았다는 주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중대본에 종합기술검토결과 보고서(예자형태)를 넘기려던 계획이 빡상 자료를 일단 넘기는 것으로 조정됐을 뿐"이라며 "찬성 여론에 따라 서두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해수부는 세월호 유가족을 중심으로 폐기 논란에 있는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유족들의 뜻을 수렴하자는 큰 틀의 방향만 나왔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연미란기자 aclo @

"표절 총장 반대" 동국대교수協 단식농성 돌입

동국대학교 교수들이 보광스님 총장 선임을 반대해 릴레이 단식에 들어간다.

동국대학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동국대학교 교내 불상 앞에서 "논문을 표절한 인물을 총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불상 앞에 천막을 치고 비대위원 7명이 하루씩 돌아가며 단식을 하겠다고 전했다.

또 위원회 측은 "지금이라도 '방하착(放下著:내려놓으라는 뜻의 불교 용어)'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보광스님에게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위원회 관계자들은 동국대 이사회가 열리는 25일까지 단식할 예정이다. 이후 이사회 결과에 따라 연장 등 여부를 결정한다고 알려졌다.

2월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인 보광스님의 논문 가운데 18편을 표절이라고 결론냈다.

현재 보광스님의 재심 청구에 따라 재심이 진행 중이다.

/이홍원기자 hone@